

scue

e세상을 움직이는
서울사이버대학교

학교법인
신일학원  서울사이버대학교 와 함께하는
www.iscu.ac.kr

SWAN
LAKE
이야기
Vol. 19
클래식 발레의 전수
국립발레단의
백조의호수

2012. 12. 9. 15:00

예술의전당 오페라극장 OPERA THEATER, SEOUL ARTS CENTER

주최 |  서울사이버대학교
협찬 |  신일학원

2013  BRAND
POWER

DT브랜드파워대상

 ICSI
2010
COMMUNICATION SATISFACTION INDEX KOREA INTERACTIVE
인터넷 소통대상

SPECIAL ISSUE SCU VISION 2020 선포
SCU TODAY 사이버대학 최초 학생맞춤학기제
PEOPLE 문화정책 전문가 유진룡 학우
EDU INFO SCU 국제학술포럼
SCU PARTNER SCU & 한국무역협회



학교법인
신일학원  서울사이버대학교
www.iscu.ac.kr

렘브란트의 화폭 속으로 떠나는 여행 ⑤

그 길을 예비하라

겨울이다. 겨울이 기다려지는 것은 성탄절이 있기 때문이다. 어떤 종교를 가지고 있던 성탄절은 즐겁기만 한 시간이다. 성탄절은 예수님의 탄생을 감사하는 날이다. 그런데, 어찌 보면 당연한 얘기인지도 모르지만, 우리는 예수님의 탄생만 기억한다. 그러나 예수님의 탄생 이전에 있었던 탄생이 있었기에 '성탄'이 더 빛을 발할 수 있었다. 바로 세례 요한의 태어남이 있었다. 불과 6개월 정도 밖에 차이가 나지 않지만, 참으로 의미있는 태어남이었다. 글 | 박한결 목사



설교하는 세례 요한 (유제, 1643)



목공소의 거룩한 가족 (유제, 1645)

지금 모든 사람에게 예수님은 '탄생'이고, 세례 요한은 '태어남'인 것처럼, 이 두 태어남에는 극적인 대비가 있다. 예수님의 탄생은 기대하지도 않았던 사건, 마리아에게 갑자기 성령으로 잉태된 사건이었고, 세례 요한의 탄생은 고대하고 고대했지만, 이뤄지지 않았던 탄생이 기적으로 발생한 사건이었다. 현대엔 점점 더 많은 여성들이 불임의 아픔을 경험하고 있다. 세례 요한의 가족도 마찬가지였다. '이제 기대를 접어야 하나?'하며 탄식하는 그 상황에 아들이 태어날 것이라는 하늘의 소리가

들렸다. 그렇게 기다리던 탄생이니 부모의 기쁨은 오죽하겠는가? 더구나 천사가 '부모는 물론이요, 많은 사람도 기뻐할 것이다'라고 얘기해 준다.

회개하라, 천국이 가까이 왔다

그런데 그런 세례 요한은 어떠한 삶을 살았는가? 정말 기쁨과 환희의 삶이었는가? 아니다. 그는 광야를 유리하며 살았다. 석청(야생꿀)과 메뚜기를 먹고 살았다. 두 벌 옷도 없이, 낙타 가죽으로 된 한 벌의 옷뿐이었다. 그가 한 일은 무엇인가? '회개하라, 천국이 가까이

왔다'는 외침이었다. 사람들이 좋아했겠는가? 비난 받고, 잘난 척하지 말라는 책망도 받았을 것이다. 위의 그림을 살펴보면 싸늘하다. 세례 요한은 사람들의 안중에도 없다. 등을 돌려 딴 짓하는 사람들, 외면하는 사람, 조는 사람들뿐이다. 치고받고 싸우는 아이들과 그것을 구경하는 사람들, 우는 아이를 향해 조용히 하라고 꾸중하는 어머니도 보인다. 시장바닥처럼 주위가 산만하고 떠들썩하다. 하지만 세례 요한은 아랑곳하지 않고, 오른손을 치켜 올리고 왼손을 가슴에 대고

고개를 숙이며 간절히 자기 뒤에 오실 분을 영접하라고 사람들에게 선포한다. 그의 포즈는 강한 호소를 담고 있다. 자기 말을 경청해 달라고 간곡히 외친다. 그러나 말을 들어주는 사람은 거의 없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세례 요한은 흔들림 없이 복음을 전한다.

그러한 그가 맞이했던 죽음의 순간은 어떠한가? 왕 앞에 서서 거침없이 얘기했던 사람이었지만 초라하게도 감옥에 갇혀 죽음을 맞이했다. 아니, 그냥 초라한 수준이 아니었다. 목베임을 당했다. 그것도 단순한 목베임이 아닌 많은 사람들 앞에 능욕을 당한 채로 축제의 순간에 목이 잘려 쟁반에 올려졌던 것이다.

예수님의 길을 준비한 세례 요한

불임 후에 생겨 출생하게 된 세례 요한, '부모는 물론이요, 많은 사람도 기뻐할 것이다'라는 이야기를 들었던 사람, 그러나 결국 그는 '고난'과 '슬픔' 가운데 삶을 마감했다. 실패했는가? 아니다. 그로 인해 예수님의 탄생과 사역이 더욱 빛을 발했다. 그는 예수님의 길을 준비한 사람이다. 누가의 표현처럼 '이스라엘 자손을 주 곧 그들의 하나님께로 많이 돌아오게 한 사람'이다. '엘리아의 심령과 능력으로 주 앞에 먼저 와서 아버지의 마음을 자식에게, 거스르는 자를 의인의 슬기로 돌아오게 하고 주를 위하여 세운 백성을 준비하게 한 사람'이다. '모든 골짜기가 메워지고 모든 산과 작은 산이 낮아지며 굽은 것이 곧아지고 험한 길이 평탄하여질' 일을 감당한 사람이다. 비록 세상의 주목을 받지 못했지만, 위대한 일을 감당한 사람인 것이다. 우리가 바로 그러한 사람이 되기를 소망한다. 📖



박한결 목사

총신대학교 신학대학원(M.Div.) 및 교육대학원(M. Edu)
(현) 온서울교회 교육목사
(현) 신일중고등학교 교목

CONTENTS

- 02 BIBLE STORY | 렘브란트의 화폭 속으로 떠나는 여행 ⑤
- 04 SPECIAL ISSUE | SCU VISION 2020 선포
- 06 SCU TODAY | 2013 스마트교육-사이버대 최초 맞춤형기제 | 권오중과 함께하는 입시설명회 | 2012 서울사이버국제디자인대전
- 10 PEOPLE-여기 e 사람 | ① 난타나 가자세니 아세안대학네트워크 사무국장 | ② '군인 멘토' 군경상담학과 이정원 교수 | ③ 문화정책 전문가 유진룡 학우 | ④ 서울사이버국제디자인대전 대상 수상자



서울사이버국제디자인대전 시상식

- 18 PEOPLE-사제지경 | 멀티미디어디자인학과 차명희 교수&제자 이용욱
- 20 SCU MENTORING | 부동산학과 멘토링그룹 '뿌리 깊은 나무' 문문현(멘토), 라인숙, 사수영, 천정자
- 22 PLUS WE | 청소년상담사로 교사의 길 걷는 이인애 동문
- 24 EDU INFO | SCU국제학술포럼 | 프랑스 톨르즈 II 대학교 라베이르, 자르피 교수
- 26 CLICK! SCU | SCU WAVE 사회봉사단 'The Big Dream' | 제1회 총동문회장배 골프대회



서울사이버대학교 WAVE 사회봉사단

- 28 SCU PARTNER | SCU & 한국무역협회
- 30 SCU LIFE | 문화, 공연, 사이버예절, 독자퀴즈, 베스트셀러 추천 | 2013학년도 입시전형료 전액 면제
- 33 SCU NETWORK | 아세안사이버대학 주관 대학 선정 의 학교소식
- 35 SCU NETWORK | 교수동정

발행처 서울사이버대학교
편집주간 이항아 교수
편집위원 고윤승, 김영민, 김현아, 박병석, 심선경, 임세희 교수
발행일 2013년 1월
기획편집 서울사이버대학교 출판부 (02)944-5325, (주)디플랜네트워크 (02)518-3430

SCU VISION 2020 선포... World Class Cyber University

국내 1위를 넘어 세계 1위를 향한 뜨거운 비상

서울사이버대학교가 세계 일류 사이버대학교로 발돋움하기 위한 <SCU VISION 2020>을 선포했다. 이미 2007년 교육과학기술부 평가 최우수 대학으로 선정된 서울사이버대학교는 명실상부한 국내 1위 사이버대학교로서 자리매김 해왔다. 국내를 넘어 세계를 향해 나아가는 서울사이버대학교의 이유있는 도전을 주목할 시점이다. 글 | 편집부

2012년 초부터 준비단계에 들어선 <비전 2020>이 11월 말 그 모습을 드러냈다. 전문역량, 자기주도적 문제 해결능력, 확고한 미래관, 리더십, 글로벌 마인드와 글로벌 경쟁력을 갖춘 인재가 서울사이버대학교가 추구하는 인재상이다. 이러한 인재양성은 서울사이버대학교가 학교의 기본임을 충실히 수행함으로써 세계 일류 사이버대학교를 향한 든든한 밑바탕이 되고 있다. <비전 2020>을 한마디로 정의하면 'World Class Cyber University', 즉 '세계 일류 사이버대학교'라고 할 수 있다. 2020년까지 세계 사이버대학교 Top 10 진입을 목표로 노력해 나가겠다는 것이다.

세계 일류 사이버대학교를 위한 힘찬 도약

<비전 2020>은 6가지 발전전략을 담고 있다. 전문성교육 강화 전략, 선도적 연구 전략, 학생만족도 제고 전략, 경영혁신 전략, 글로벌 전략, 사회공헌 전략이 그것이다. 각 발전전략 내에는 대학의 고유 기능인 교육·연구·봉사를 더욱 강화하고 바람직한 인재 양성을 위한 구체적이고 세부적인 사업 내

용이 담겨 있다. 서울사이버대학교 재학생의 장학금 수혜율은 현재 1위 이다. 이러한 장학제도를 조금 더 학생 개개인에 맞춤형시키고 커리어 코칭제도를 확대해나갈 예정이다. 교직원 및 부서간 네트워크를 강화하여 학생들에게 원스톱 서비스를 제공함으로써 학생들의 만족감을 높이고 있다. 대학교육에 있어서 직업중심 전문교육이 점차 강조되는 시대인 만큼 현장실무 산학연계교육, 교양교육, 기업위탁교육 등을 강화하여 사회에서 요구하는 준비된 인재를 키워나가는 데 중점을 두고 있다. 또한 특성화 영역 연구 강화를 위해 해외학자와의 공동 연구나 공공기관과의 협업을 지속해 나가고 외부 학자·전문가와의 네트워크 강화, 국제 저명 학술지에 논문 게재, 국제학회의 참여·운영 등을 확대할 계획이다.

대학 경영에 있어 수입 확대는 대학발전의 동력이 될 수 있는 중요한 원천이 되고 있다. 비학위과정을 신설하여 평생교육원을 운영하거나 지적재산권 확보 등으로 수입의 다변화를 모색하고 있다.

2020 SCU... 사이버대학교 아시아 1위, 세계 10위권 목표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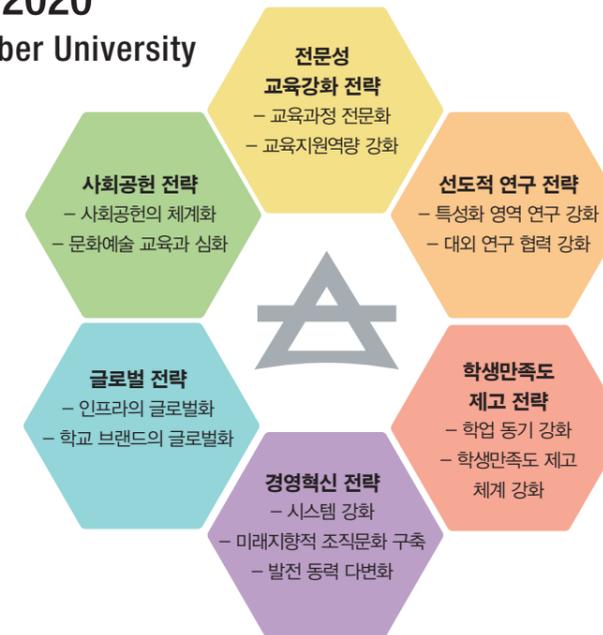
이미 서울사이버대학교의 글로벌화는 시작되었다. 외국의 대통령이나 국왕, 대학 총장들이 서울사이버대학교를 수차례 방문했다. 해외 대학과의 교류강화는 서울사이버대학교를 세계적으로 홍보하는 중요한 수단이 되고 있다. 진행중에 있는 한·아세안 사이버대학교 프로젝트의 주관대학으로서 아시아 1위 사이버대학교로서의 준비는 마친 상태이다.

SCU e-Learning WAVE는 사이버대학 최초로 e러닝 국제대회인 'IMS Learning Impact Award 2011'에서 은상을 수상했고, 국내 특허도 받은 교육시스템이다. 서울사이버대학교는 이 첨단시스템을 세계에 보급하여 세계 표준화로 인정받고자 노력하고 있다.

이외에도 다중언어 콘텐츠 개발 및 외국인 교수 확보, 해외캠퍼스 구축, 한국어학당 운영을 통해 세계 경쟁에서 우위를 차지할 전략을 실천해 나가고 있다.

서울사이버대학교의 지역사회 봉사활동은 강북제일교회 심리상담센터를 통해 지역 내 주민들을 대상으로 활성화되어 있다. 여기서 그치지 않고 사회공헌을 공부와 연계하여 재학생과 교직원을 대상으로 하는 교양과목을 신설하는 등 체계화할 예정이다. 교육 소외계층에 대한 봉사는 물론 전국 8개 지역학습관을 일반인에게까지 개방하여 문화체험교육의 장으로 만들어 나갈 것이다. ☞

SCU VISION 2020 World Class Cyber University



서울사이버대학교는 전문역량, 자기주도적 문제해결능력, 확고한 미래관, 리더십, 글로벌 마인드와 글로벌 경쟁력을 갖춘 인재양성과 성공적인 산학연계를 위한 선도적 연구 활성화를 통해 2020년 세계 일류 사이버대학교로 발돋움 하겠다는 <SCU VISION 2020>을 선포했다.

Mini Interview

채정민 입학처장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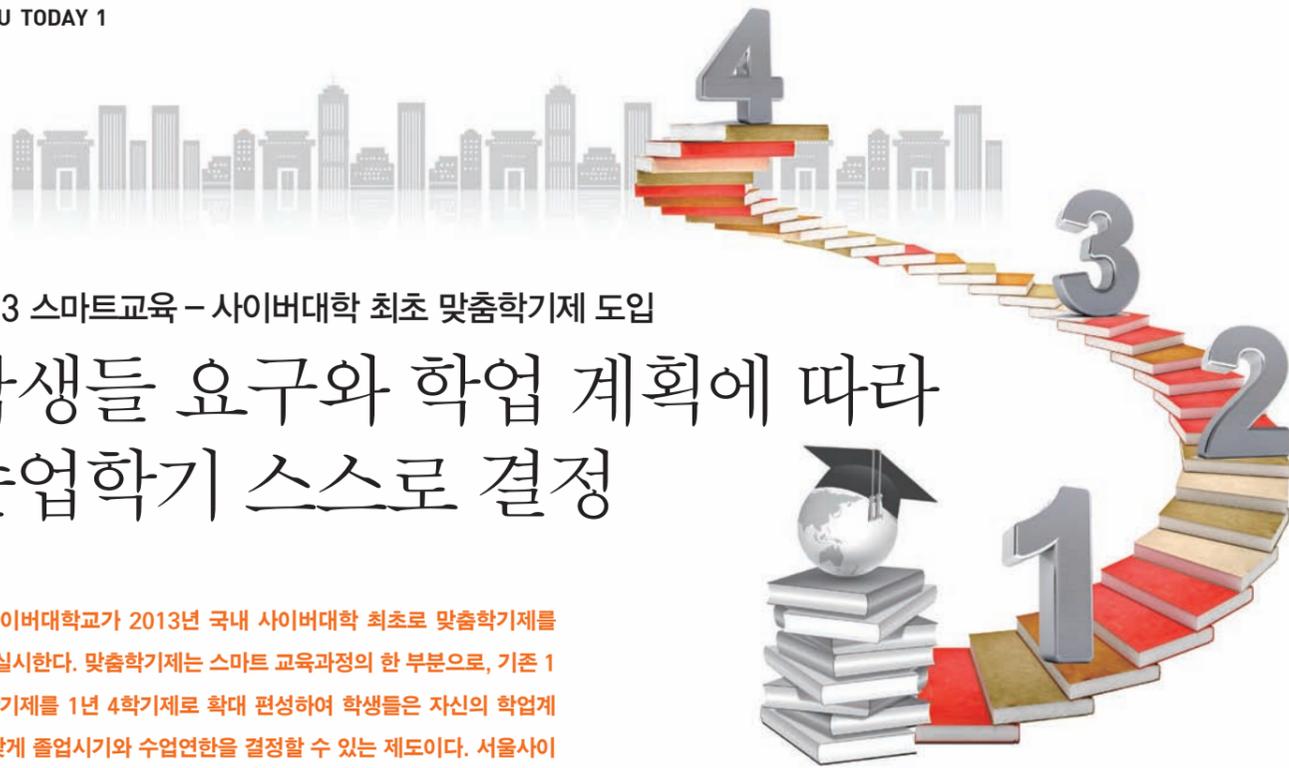
양적 성장 넘어선 질적 성장 통해 세계 일류에 도달할 것



"학교 발전도 계획이 필요합니다. 대학 경쟁사회에서 발전하기 위해서는 준비가 필요하죠. 예측 가능한 시점까지, 가능성을 바탕으로 <비전 2020>을 계획하게 되었습니다."

채정민 입학처장을 통해 <비전 2020>을 도입하게 된 계기를 들을 수 있었다. 이미 양적으로 성장한 서울사이버대학교를 질적으로 성장시키기 위한 전략인 만큼 각종 대학평가에서 인증을 받도록 준비해 나갈 예정이다.

채 처장은 2020년 서울사이버대학교의 청사진을 다음과 같이 제시했다. 먼저 2020년에는 재학생이 2만 명, 대학원생이 1,500여 명에 이를 것으로 예상하는데, 이는 현재보다 2배 이상 높은 수치라고 할 수 있다. 학교건물도 늘어난 학생들을 수용할 수 있도록 2배 이상의 규모로 확장하는 동시에, 국내 및 아시아에서는 1위 사이버대학교, 세계적으로는 10위권 내로 진입할 것으로 보고 있다. 곧 해외에서도 서울사이버대학교 캠퍼스를 보게 될 날이 얼마 남지 않았다고 자신하는 채정민 처장. 이들의 당찬 도전을 통해 서울사이버대학교가 세계 일류를 향해 포효하는 그날을 기대해 본다.



2013 스마트교육 - 사이버대학 최초 맞춤형기제 도입

학생들 요구와 학업 계획에 따라 졸업학기 스스로 결정

서울사이버대학교가 2013년 국내 사이버대학 최초로 맞춤형기제를 도입, 실시한다. 맞춤형기제는 스마트 교육과정의 한 부분으로, 기존 1년 2학기제를 1년 4학기제로 확대 편성하여 학생들은 자신의 학업계획에 맞게 졸업시기와 수업연한을 결정할 수 있는 제도이다. 서울사이버대학교가 자신있게 선보이는 맞춤형기제에 대해 자세히 들여다보자.
글 | 편집부

서울사이버대학교는 지난 10년 간 많은 시행착오를 겪으면서 학생들에게 만족도를 높일 수 있는 수업체계를 만들기 위해 노력해 왔다. 10대에서 70대까지 다양한 연령층을 수용해야 하는 사이버대학의 특성상 1년 2학기제의 경직된 틀은 사이버대학 학생들을 위한 수업체계로는 한계가 있었다. 그래서 이번 학생 맞춤형기제를 도입하게 되었다는 것이 남상규 교무부처장의 설명이다. 그는 '학생들의 다양한 요구를 담고자 외국 대학의 쿼터제와 국내 대학의 사례를 검토하고 사이버대학의 특성에 맞춰 1년 4학기제를 도입하게 되었다'고 밝혔다. 1년 4학기제는 기존의 1, 2학과와 하계 및 동계방학에 개설하는 각 6주간의 집중학기를 더해 연간 총 42주의 수업을 진행하는 제도이다. 기존의 1년 2학기제에 비해 연간 수업 일수가 12주 더 늘어나, 그만큼 학점을 더 많이 취득할 수 있고 조기졸업도 보다 용이해진다.

다양한 학생층을 아우르는 1년 4학기제 도입

1년 4학기제는 기존의 일반학기는 반드시 등록해야 하지만, 집중학기는 학생이 수강 여부를 결정한다. 학생이 1년 동안 4학기를 수강하고 싶으면 일반학과 집중학기를 모두 등록하면 되고 그렇지 않은 경우 일반학과만 등록하면 된다. 학생들의 학습패턴에 따라 다양하게 선택할 수 있도록 학생 중심

의 수업체계가 이루어졌다고 할 수 있다.

이 제도를 통해 학생들은 각자 자신의 목표에 맞추어 신입생은 3년, 3.5년, 4년, 편입학생은 1.5년, 2년 등 다양하게 수업연한을 선택할 수 있게 된다. 그러면 기존의 하계와 동계방학에 개설됐던 계절학과 새롭게 바뀐 집중학기의 차이점은 무엇인지 알아보자.

계절학과는 개설 교과목이 과마다 1~2개 정도, 1년에 30과목 내외였다. 하지만 집중학기는 정규학기인 만큼 개설과목 수도 계절학과와 비교하면 2배 이상 늘어났으며, 점차 확대해 나갈 예정이다. 계절학기의 수업기간은 5주였으나 집중학기의 수업기간은 6주로 기간도 늘어난다. 무엇보다 집중학기에 일반학기처럼 장학금을 지급한다는 점이 계절학과와는 큰 차이점이라 할 수 있다. 집중학기에 지급되는 장학금은 첫 학기에는 모든 수강생이 동일하게 20%를 지급받는다. 그리고 다음 학기부터는 직전 집중학기의 성적이 3.0 이상이면 장학금 혜택을 받을 수 있다.

맞춤학기제를 통한 일·학습·가정의 조화 이뤘

맞춤학기제를 통해 기대할 수 있는 효과를 요약하면 '일·학습·가정의 조화'라고 할 수 있다. 이 제도는 사이버대 학생들

Mini Interview

남상규 교무부처장

스마트교육과정으로 최우수 사이버대학으로서의 입지 다질 것



사이버대학이 고등교육기관으로 규모가 커지면서 경쟁이 치열해지고 있다. 또한 스마트폰의 대중화로 인해 어플리케이션을 통한 모바일학습이 확대된 만큼 사이버대학에 대한 관심도 높아지고 있다. 이에 부응하고자 '서울사이버대학교는 맞춤형기제 이외에도 스마트 교육과정 내에 학생의 요구에 맞춘 다양한 프로그램을 실시하고 있다'고 남상규 교무부처장은 설명했다. 스마트폰을 활용한 수업 접근성 강화, 현장 전문가를 활용한 팀티칭 강의의 확대 등 수요자 중심의 교육을 제공함으로써 최우수 사이버대학으로서의 입지를 굳혀 나가고 있다는 것이다.

남상규 교무부처장은 '2013년에도 서울사이버대학교는 학생들이 바라는 교육서비스를 제공하기 위해 노력할 것이며 특성화·차별화된 교육을 통해 재학생들이 긍지와 자부심을 가질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다'고 밝혔다.

의 특성상 직장 또는 가정과 학습을 병행하는 경우가 많기 때문에 두 마리 토끼를 모두 잡고자 하는 학생들을 위한 배려인 셈이다. 일과 학업을 병행하는 학생들의 경우 4학기로 분산해서 수강하게 되면 학습부담을 완화시킬 수 있기 때문에 중간에 학업을 포기하는 일을 줄일 수 있다.

이 제도는 학습 적령기 학생들에게도 도움이 된다. 졸업시기를 앞당겨서 빠른 취업도 가능하지만 학업을 중단하지 않고 꾸준히 하게 됨으로써 취업에 대비한 적응력도 키울 수 있다. 학업에 대한 의욕만 있다면 집중학기 수강을 통해 학습의 흐름이 끊기지 않도록 함으로써 방학이 끝나고 학업에 다시 적응할 시간을 줄일 수 있다. 또한 학생들의 만족도를 높여 재등록율도 높일 수 있는 효과를 가져 올 수 있다.

아래의 예시처럼 맞춤형기제로 학생들의 학습패턴이나 목표에 따라 1년간 수업계획을 다양하게 구성할 수 있다.

▶ 맞춤형기제 1년간 수업 활용 예시

학생 요구	과목 수(이수학점)						총합계	학습 부담	수업 연한
	1학기	하계	방학	2학기	동계	방학			
수업연한 단축	6(18)	2(6)	1개월	6(18)	2(6)	1개월	16(48)	상	3년
일반(기준)	6(18)	방학 2개월		6(18)	방학 2개월		12(36)	중	4년
학습부담 완화	4(12)	2(6)	1개월	4(12)	2(6)	1개월	12(36)	하	4년

* 신입생 및 3학점 교과목을 기준으로 함

▶ 학생맞춤학기제의 특징

구 분	주요 내용
1년 4학기	- 1년은 1학기 ⇨ 하계학기 ⇨ 2학기 ⇨ 동계학기의 4학기로 운영됨
수업 일수	- 1학기(15주) + 하계집중학기(6주) + 2학기(15주) + 동계집중학기(6주) = 총 42주 - 단, 집중학기는 자율 선택 사항임
학기명칭	- 일반학기 : 1학기, 2학기 - 집중학기 : 하계학기, 동계학기
장학 제도	- 1년 4회의 장학금 수혜 기회 · 일반학기 : 학생 개인별 장학정보에 따라 지급 · 집중학기 : 집중학기장학금(수업료의 20%) ^{주1)} 지급
졸업 제도	- 졸업트랙 선택 · 신입생 : 4년, 3.5년, 3년 트랙 선택 가능 · 2학년 편입생 : 3년, 2.5년 트랙 선택 가능 · 3학년 편입생 : 2년, 1.5년 트랙 선택 가능

주1) 4년 수업연한 내에서 수혜가능하며 직전 집중학기 성적이 3.0 이상이어야 함. (단, 처음 수강하는 집중학기는 성적제한 없이 지급).
* 보훈본인 및 보훈자녀는 별도기준에 의거하여 지급함.

서울사이버대학교는 2013년부터 국내 사이버대 최초로 1년 4학기제를 도입, 실시한다. 맞춤형기제를 통해 학생이 일과 학업을 병행하는데 지장이 없도록 재학생 맞춤 학사 서비스를 제공함으로써 성인을 위한 고등교육기관으로서의 소임을 충실히 수행해 나갈 것이다.

권오중과 함께하는 입시설명회

대학 생활, 미리 체험해 보고 결정하세요!

서울사이버대학교 사회복지학과 졸업생이자 휴먼서비스대학원에서 석사과정을 밟고 있는 배우 권오중 동문과 함께 하는 입시설명회와 캠퍼스투어가 지난 11월 24일 열렸다. 이날 참석자들은 직접 최첨단 교육 시설 및 콘텐츠 제작 현장 체험과 아울러 맞춤형 진학상담이 이루어졌으며 권오중 동문의 실제 학교생활 경험담을 들을 수 있었다. 글 | 편집부

캠퍼스 투어 프로그램 이후 진행된 이날 입시설명회에는 서울사이버대학교 동문이자 현재 휴먼서비스대학원에 재학 중인 권오중 동문이 함께 하여 대학생활과 학습 노하우 등을 공유하며, 뜻깊은 시간을 가졌다.



서울사이버대학교는 지난 11월 24일 2013학년도 하반기 신·편입생 지원자 및 관심있는 일반인들을 위한 '권오중과 함께하는 서울사이버대 입시설명회' 및 오픈 캠퍼스 투어를 진행하였다. 이번 프로그램은 서울사이버대학 지원자 및 관심있는 일반인들이 평소 가지고 있던 사이버대에 대한 궁금증을 해소시키고 이해를 돕기 위해 기획되었다. 사이버대학 선택을 고민하는 지원자들이 직접 보고 듣고 느끼는 경험을 통해 꼼꼼히 따져보고 비교, 선택할 수 있는 기회를 제공하는 것이다. 이는 학생의 편의를 최우선으로 생각하는 서울사이버대학교만의 차별화된 프로그램이다.

참가자들은 학교소개 및 입학, 학습방법 등에 대한 자세한 설명을 들은 후 서울사이버대학교의 최첨단 시설과 콘텐츠 제작 현장 견학, 사진 촬영 등 다양한 프로그램들을 경험하였다. 또한 전임교수와 1:1 맞춤 진학상담과 심리상담센터 견학 프로그램이 마련되어 있어 사이버대학에 대한 궁금증을 해소할 수 있도록 하였다. 이를 통해 서울사이버대학교를 직접 경험할 수 있는 기회를 제공, 사이버대 진학을 고민하는 이들에게 많은 도움이 될 것으로 예상된다.

2007년 서울사이버대학교 사회복지학과를 졸업한 권오중 씨는 재학 당시 바쁜 활동 속에서도 성적장학금을 받을 만큼 우수한 성적을 유지했으며, 졸업과 함께 사회복지사 자격증을 취득하는 등 사회복지학에 대한 열의가 매우 높았다. 또한 2012년 3월 서울사이버대학교 휴먼서비스대학원에 진학하여 현재 사회복지학 석사과정을 밟고 있다.

권오중 씨는 "연예활동을 하면서 시간을 내기 쉽지 않았지만, 온라인 강의로 시간을 효율적으로 활용하고 교수님의 조언을 구하면서 힘든 순간을 이겨냈다"며 "이번 설명회를 통해 서울사이버대학교에 관심 있는 지원자 분들에게 새로운 도전과 학업에 대한 용기를 북돋아 주고 싶다"고 전했다. ☞

2012 서울사이버 국제디자인대전

세계 디자이너와 예비 디자이너가 나누는 소통의 장

지난 12월 26일, 서울사이버국제디자인대전 시상식이 '북서울 꿈의 숲 아트센터'에서 열렸다. 서울사이버국제디자인대전은 21세기 새로운 컴퓨터그래픽 디자인 전문가 양성을 위해 실시되는 행사로 이번 대회를 포함해 총 다섯 차례 진행되었다. 특히 올해부터는 국제공모전으로 확대하여 해외에서도 우수한 작품들이 출품되었다. 글 | 편집부

수상작은 공모전 사이트(<http://multi.iscu.ac.kr/sangsang>)를 통해 확인할 수 있다.



서울사이버국제디자인대전 개막식에는 강인 총장을 비롯해 허요연·이은주 부총장, 멀티미디어디자인학과 양호일·박숙희 석좌교수, 이항아·차명희 교수 등이 참석했다.

지난 12월 26일, '북서울 꿈의 숲 아트센터'에서는 서울사이버대학교에서 주최하는 '서울사이버국제디자인대전'이 열렸다. 서울국제사이버디자인대전은 자신의 감성을 컴퓨터 기술을 활용한 아름다움으로 표현하는 디자인 전문가들에게 다양하고 이색적인 볼거리를 제공했다. 더불어 예비 디자이너들은 출품된 작품을 보며 자신의 실력을 가늠해 보고 배울 수 있는 기회이기도 했다. 이번 '2012 제5회 서울사이버국제디자인대전'은 공모 대상을 해외로 확대 실시함으로써 외국인의 공모 작품도 다수 전시되었다.

고등학교 재학생들과 전문학교, 전문대학과 4년제 대학교 학생, 일반인 등 폭넓은 대상으로 실시된 서울사이버국제디자인대전은 총 세 가지 부문에 응모할 수 있었다. 그래픽디자인, 멀티미디어디자인, 타이포그래피 부문으로 나누어 지난 11월 25일까지 작품을 온라인을 통해 공모하고 이후 심사를 거쳤다. 영예의 대상에는 김민지, 변은영, 정수연 씨가 공동 출품한 작품 <Take-out space>가 선정되었다. 스마트폰을 이용한 멀티미디어디자인을 선보여 기술 융·복합 시대에 발맞춘 작품으로 심사위원들의 우수한 평가를 받았다.

차명희 멀티미디어디자인학과장은 "국제디자인공모전으로 격상된 이번 대전을 통해 전 세계 디자이너와 예비 디자이너가 함께 참여할 수 있는 글로벌 디자인 소통의 장이 되었다"며 이번 서울사이버국제디자인대전이 성공적으로 치러졌다고 이야기 했다. 한편, 동상을 수상한 태국의 Kunnapha 씨를 포함한 총 13명의 외국 응모자들의 작품도 눈에 띄었다. 앞으로도 창의적인 아이디어를 활용한 다양한 작품 발굴을 통해 '서울사이버국제디자인대전'이 국제적인 명성 속에서 차츰 발전하고 확대되길 기대해 본다. ☞



난타나 가자세니 아세안대학네트워크 사무국장

아세안대학네트워크 여성리더, SCU 교육네트워크에서 답을 얻다

아세안대학네트워크(ASEAN University Network : AUN)의 난타나 가자세니(Nantana Gajaseeni) 사무국장이 본교를 방문했다. 어느덧 네 차례나 한국을 방문한 그녀는 이번에도 한국과 동남아시아국가연합(ASEAN) 사이의 다양한 고등교육분야 협력 사업을 위해 한국을 찾았다. 특히 그녀는 2012년 한 해 동안 서울사이버대학교를 두 차례 방문해 한국의 이러닝에 대한 깊은 감명을 표했다.

글 | 편집부

난타나 가자세니 사무국장이 몸담고 있는 아세안대학네트워크는 1992년 제4차 아세안정상회의에서 지역 내 인적자원 개발과 고등교육 활성화 문제가 제기되면서 설립의 밑그림이 그려졌다. 이후 1995년에 회원국 대표들이 아세안대학네트워크 헌장에 서명하며 본격적으로 설립된 이 조직은 현재 10개 회원국(라오스, 말레이시아, 미얀마, 베트남, 브루나이, 싱가포르, 인도네시아, 캄보디아, 태국, 필리핀) 안에서도 학문적으로 우수성을 인정받고 있는 26개 대학이 회원으로 참여하고 있다.

● 아세안대학네트워크로 뭉친 아세안의 대학들

“아세안대학네트워크의 조직은 정책결정을 담당하는 이사회(Board of Trustees)와 실무를 담당하는 사무국(Secretariat)으로 구성되어 있고 사무국은 태국 방콕에 소재하고 있습니다. 현재 추진하고 있는 사업은 참여대학들과 함께 한국, 일본, 중국 대학 간 학위 및 비학위과정의 학생교류를 지원하고 있어요.”

실제로 아세안대학네트워크는 다양한 사업을 소화하고 있다. 아세안 지역 내 대학교육의 질 보증(Quality Assurance)과 역량강화를 위한 연수프로그램을 수행하는 것을 비롯해, 최근에는 참여대학 간 학점교류시스템(ASEAN Credit Transfer System)을 개발하기도 했다. 이 프로그램은 학생들이 대학을 선택해 교환학생으로 6개월 혹은 1년 정도 체재하며 전공 및 교양과목들을 수강한 후 취득학점을 소속대학에서 인정받는 제도다. 그밖에도 다양한 아세안연구(ASEAN Studies)나 인간안보(Human Security) 등 공동학술연구 지원도 병행한다. 이번에 난타나 가자세니 사무국장이 서울사이버대학교를 방문한 이유는 서울사이버대학교가 주요 협력대학이기 때문에 아세안사이버대 설립사업(이하 ACU프로젝트)을 협의하기 위한 것이다.

“ACU프로젝트는 기존 오프라인 위주의 고등교육 관련 국제 교류와는 다릅니다. 차별화된 이러닝을 매개로 한 교육 분야 국제협력사업이라고 할 수 있지요. 2011년 9월부터 캄보디아, 미얀마, 라오스, 베트남에 이러닝센터 구축을 시작으로 사업이 본격적으로 시작되었습니다. 서울사이버대학교는 2012년에 주요 협력대학으로 참여해 12종의 콘텐츠 개발과 참여대학 간 학점교류, 그리고 운영위원회 설립 등의 가시적인 성과를 보여줬습니다. 솔직히 1년 만에 이러한 발전을 이룬다는 것이 놀라울 따름입니다.”



업무 차 세계 우수 대학들을 방문해 온 난타나 가자세니 사무국장은 서울사이버대학교 캠퍼스를 둘러보며 “서울사이버대학교의 인프라는 최고”라며 감탄을 표했다.

●● ACU프로젝트로 아세안의 교육을 하나로

2013년에는 ACU프로젝트의 참여범위가 기존 캄보디아, 라오스, 미얀마, 베트남 이외에 아세안의 중위권 그룹 국가들인 태국, 인도네시아, 필리핀, 말레이시아 등의 타 국가와 대학으로도 확대될 예정이다.

“이들 국가의 교육 관련 정부 부처와 대학들의 참여를 촉진하기 위한 다양한 마케팅이 필요합니다. 우선, 정부 부처 차원의 유치 전략은 한국의 교육과학기술부가 한-아세안 정상회의나 교육장관회의 등을 통해 ACU프로젝트의 성과를 홍보하고 참여를 독려하는 것입니다. 본 사업이 2009년 한-아세안 정상회의를 통해 시작된 만큼, 이러한 고위급 회의를 적극 활용하는 것이 중요하다고 하겠습니다.”

이와 관련해 대학 차원에서는 ACU프로젝트의 사무국 역할을 하고 있는 서울사이버대학교가 아세안대학네트워크와 공동으로 중위권 그룹 국가들의 대학을 대상으로 2013년 1분기 중 워크숍을 개최할 예정이다.

“서울사이버대학교가 이 ACU프로젝트의 추진에 있어 중추적 역할을 담당하고 있기 때문에 그 자체로 대학 간 국제협력의 역량을 키울 수 있는 기회가 될 것으로 생각합니다. 2011년부터 착수한 이번 프로젝트의 콘텐츠 개발에 있어서도 서울사이버대학교의 우수한 콘텐츠가 영문으로 업그레이드되어 탑재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현재 초기단계에 있는 ACU프로젝트가 정착되면, 실질적인 교류기회도 점점 늘어날 것이라고 난타나 가자세니 사무국장은 이야기 하였다. 앞으로 ACU프로젝트를 통해 얼마나 다양한 교육기회들이 열릴지 자못 기대가된다. ☞

군경상담학과 이정원 교수

행복한 병영생활에 도움 주고픈 어머니 같은 군인 멘토

대한민국 남자라면 꼭 거쳐야 하는 그 곳, 군대다. 좋은 싫든 남자라면 21~24개월 황금같은 시간을 군대에서 보내야 한다. 누군가에게는 더 성숙할 수 있는 시간이 되기도, 다른 누군가에게는 지우고 싶은 기억으로 남게 되기도 하는 시간이다. 다양한 개성을 가진 사람들이 동고동락 하다 보니 개인적 문제만 아니라 조직과의 마찰도 생기기 쉽다. 이러한 문제들을 해결하기 위한 군의 노력에 함께 하는 조력자가 있으니, 바로 이정원 교수다. 글 | 편집부

군대와 관련된 모든 것은 으레 남자와 연관이 있다고 생각했는데 이와는 반대로 야기자기한 교수 연구실에서 아담하고 온화한 모습의 이정원 교수가 기다리고 있었다. 이 교수는 2008년에 개설된 국내 유일의 군경상담학과에서 군과 경찰 조직에 맞는 특화된 상담교육을 진행하면서 전문 상담가들을 배출하는데 힘쓰고 있다.

● **군상담은 개인과 군 조직 목표와의 조율이 중요**

이정원 교수는 2005년부터 군 상담을 시작해온 전문가다. 육군리더십센터 자문위원, 대한군상담학회 이사 등. 그의 직책이 보여주듯 그는 군 상담 분야에서 단연 으뜸이다. 2005년부터 꾸준히 군과 함께 군에 맞춘 상담이 무엇인지 논의해 가며 간부들을 대상으로 상담교육을 실시하면서 지금에 이르게 되었다.

“예전에는 군 간부들이 병사들과 상담을 하려고 할 때 병사들이 마음을 열지 않아 어려워했어요. 또한 상담자의 역할을 군중(군대에서 종교를 담당)이 맡고 있었죠. 그래서 지인을 통해 봉사활동으로 군대 내 상담을 시작하게 되었어요.” 그의 참여와 조언 덕분에 현재는 군 자체적으로 병영전문상담가를 채용하고 있을 정도로 군 상담이 보편화되어있다.

군 상담은 일반상담과는 다른 측면이 있다. 일단 일반상담처럼 개인이 자발적으로 상담을 요청하기가 쉽지 않고 주로 군 간부의 의뢰에 의해 군 상담이 진행되고 있다. 함께 생활하기 때문에 비밀보장도 어렵고 군 조직 내의 목표와도 조화를 이루어야 하기때문에 군상담은 어렵다. 군 부적응 문제는 개인의 문제뿐만 아니라 조직 내 문화와 같은 환경적 문제도 겹쳐 있어 복합적이다. 그는 ‘군조직의 목표에 개인의 목표를 맞춰야 하는 것이 군상담의 한계이면서 가이드라인’이라고 설명한다. 따라서 상담가에게는 군조직의 이해도 필요하다.



이정원 교수는 '행복한 병영생활이 되도록 병사들의 심리적·정서적 안정을 찾도록 돕는 것이 군 상담의 역할'이라고 설명했다.



사실 이정원 교수가 병사들에게 유명하게 된 것은 국방일보 내 상담코너에 칼럼을 게재하면서부터였다. 국방일보 기자로 근무하고 있는 졸업생의 부탁으로 2011년부터 병사들의 연애·청춘 상담을 맡았다. 매주 1회 국방일보를 통해서 그들의 애뜻한 마음을 이해해 주고 정성어린 답변으로 소통해 왔다. “20대 청춘의 병사들에게 이성친구의 존재는 군 생활에 큰 영향을 미친다고 볼 수 있어요. 군대 내에서는 ‘일말상초’, 즉 ‘일병 말부터 상병 초에 커플들이 위기를 맞는다’라는 말이 있듯이 군복무 중에 연애관계를 유지하는 일이 쉽지는 않잖아요. 이성문제가 곧 군 생활을 어렵게 만드는 요인 중 하나가 되기도 합니다. 그래서 전 연애상담을 할 때 늘 믿음을 우선으로 하라고 조언했어요.”

●● **상담으로 부적응병사들의 작은 변화 유도**

이러한 상담 외에도 군대 내에서는 부적응병사에 대한 상담이 중요시되고 있다. 부적응병사의 경우 군대 내 따돌림이라든지 가혹행위 등으로 적응을 하지 못하게 되어 심각할 경우 사고로 이어질 수 있기 때문에 군에서도 특히 신경을 쓰고 있는 부분이다. “그린캠프라고 하는 부적응병사들을 위한 2주 치유 프로그램이 있어요. 제가 직접 참여한 적도 있습니다. 그때 병사들 중에는 단순히 우울증이나 불안을 보이는 것 말고도 인생 자체에 대한 목표가 없는 경우도 많았어요. 저는 인생의 목표를 세울 수 있도록 옆에서 돕고 병사들 자신에게 편지를 쓰도록 한 뒤 그들이 원하는 날짜에 배송을 해주곤 했어요. 나중에 편지를 받아봤을 때 자신의 목표를 되새겨볼 수 있도록 말이죠.”

이정원 교수는 2012년 인천·경기지방병무청으로부터 군복무공익요원 복무부적합자 심사위원으로 위촉됐다. 군복무가 적합하지 않은 병사들을 공익요원으로 배치하고, 그 후에도 문제가 지속될 경우 현역부적격 심사를 거쳐서 소집해제 여부를 결정하는 것이다. 그는 이 제도가 방대한 자료의 수집과 복잡한 행정적 절차들로 인해 군 부적응자에게 계속 고통을 주게 될 수도 있다며 우려를 나타냈다. 따라서 군과 병무청, 민간기관들의 긴밀한 협조와 소통이 필요하다고 말한다.

제한적인 군대 내에서 상담을 통해 가시적 효과를 보는 것은 여간 어려운 일이 아니다. 하지만 이정원 교수는 작은 관심으로부터 병사들의 마음을 열게 만들어 군 생활이 행복해질 수 있는 환경을 조성하는데 일조하고 싶다고 말했다. ☞



문화정책 전문가 유진룡 학우
(휴먼서비스대학원 사회서비스전공)

세상 향한 열린 눈으로 가치 있는 내일의 길을 닦다

한 분야에서 자신의 이름을 알리기란 쉽지 않은 일이다. 그런 점에서 유진룡 학우는 남다른 능력을 지닌 사람이다. 문화정책 전문가인 그는 가톨릭대학교 한류대학원장으로서 우리 문화의 영향력을 세계로 넓혀가는 과정을 고민 중이다. 하지만 이와 함께 더 가치 있는 세상을 만들고 싶은 자신의 꿈도 키워가고 있다. 서울사이버대학교 휴먼서비스대학원 진학은 그런 맥락에서 시작했다. 글 | 편집부

● 가치 있는 세상을 위한 끝없는 공부

유진룡 학우는 스스로 공부하는 학생이면서도, 또 다른 학생들에게 지식을 전하는 스승이다. 현재 그는 가톨릭대학교 한류대학원장이자 석좌교수, 그리고 서울사이버대학교 휴먼서비스대학원 재학생이라는 세 가지 역할을 감당하고 있다. 그야말로 1인 3역이다.

“지금은 방학이라 조금 여유가 있습니다. 서울사이버대학교

휴먼서비스대학원에 진학한 첫 학기에도 을지대학교 교수직을 사임한 이후라 공부에 집중할 수 있었어요. 그런데 2학기 때에는 가톨릭대학교 한류대학원장직을 맡게 되어 여러모로 시간이 부족하긴 했지요. 하지만 관심 있는 분야라 즐겁게 공부하고 있습니다. 아무래도 가르치는 것보다는 배우는 게 더 재미있어요.”

그가 서울사이버대학교 휴먼서비스대학원에 진학한 것은 우

연이기도, 운명이기도 했다. 문화정책이라는 자신의 전문 분야와 별개로, 사회적인 가치를 공유하는 일에 관심을 갖던 중, 서울사이버대학교 브로슈어를 보게 되었다.

“사회서비스전공에 사회적 기업과 관련한 커리큘럼이 있더군요. 바로 ‘내가 찾던 학교’라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또 제 후배들 가운데 신일고 출신이 몇 있는데, 그 친구들로부터 학교 자랑을 많이 들었거든요. 입시 위주 교육이 아닌 예술 활동이나 인문학 교육을 받았다고요. 그래서 같은 재단에서 설립한 대학이니까, 다른 학교와 무언가 다를 것이라고 생각했습니다.”

그 자신이 학생을 대상으로 수업을 해본 경험이 있기에, 수업을 들으면 교수들이 얼마나 준비했는지 느껴진다고 한다. 아울러 학교 시설을 비롯한 여러 환경들은 오프라인 대학과 견주어도 뒤지지 않을 만큼 잘 갖추어져 있다고 평했다.

●● 우리 문화의 미래를 향한 전문가적 고민

한편으로 우리 문화의 저변이 확대되는 요즘, 그는 가톨릭대학교 한류대학원장직을 제안 받고 다시금 학계로 복귀했다. ‘한류’라는 단어가 들어간다고 해서 K-팝이나 K-드라마를 연구하는 곳은 아니다. 그는 한류가 좁은 의미에서 민족주의적인 색채를 띠어서는 안 된다고 강조한다. 우리 문화를 해외로 전파하는 활동도 필요하지만, 우리 스스로 문화적 다양성을 갖추는 일이 더 중요하다는 것. 그래야만 우리 문화도 세계에서 꾸준히 주목받을 수 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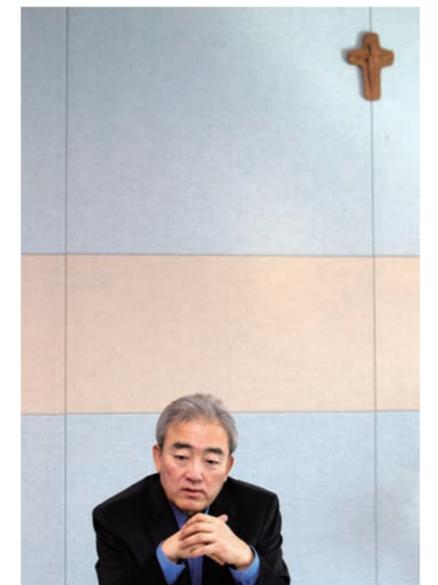
“가톨릭대학교 한류대학원은 우리나라의 문화 요소를 다른 분야와 접목해 더 많은 부가 가치를 창출할 수 있을지를

연구·교육하는 곳입니다. 이제 문화는 관광업을 비롯해 제조업이나 무역업에까지 영향을 미치는 지배적인 요소가 됐습니다. 이런 현상을 어떻게 받아들이고 활용할 것인지 고민해야 할 때입니다.”

28년간의 공직생활 동안 문화부차관을 역임하는 등 문화정책 분야에서 그 누구보다 전문성을 갖고 있는 그가 서울사이버대학교 휴먼서비스대학원에서 사회서비스를 전공하게 된 까닭은 다양한 경험에 이론적 지식을 더해 가치 있는 세상을 만드는 데 일조하고 싶어서다. 이런 그의 목표는 크게 두 가지 방향으로 나뉜다. 단기적으로는 가톨릭대학교 한류대학원의 안정이고, 중장기적으로는 서울사이버대학교 휴먼서비스대학원에서 공부한 내용을 바탕으로 우리 사회가 더불어 사는 사회로 나아가는 데 기여하는 것이다.

“공무원 생활을 마치고 나와 사회생활을 하면서 느낀 것은 재물과 권력을 가진 사람들이 오히려 배려심이 부족하다는 거였어요. 휴먼서비스대학원을 다니면서 좋은 분들을 많이 만났는데요. 그런 분들을 볼 때마다 아직 우리 사회가 희망이 있다는 생각이 듭니다.”

이런 그가 평소 마음에 두고 있는 두 단어는 ‘역지사지(易地思之)’와 ‘견리사익(見利思義)’다. 항상 타인의 입장에 서보고, 눈앞의 이익을 보아도 의리를 먼저 생각하는 그의 마음가짐이 우리 사회를 조금 더 밝게 만드는 작은 씨앗이 되기를 기대한다. ☞



현재 가톨릭대학교 한류대학원장으로 재직 중인 유진룡 학우는 서울사이버대학교 휴먼서비스대학원에서 사회서비스를 전공하며 주경야독하고 있다.

서울사이버국제디자인대전 대상 수상자 김민지, 변은영, 정수연 씨 공간에 대한 재미있고 신기한 발상 테이크아웃(Take-out)한 공간 내 취향대로

2012년 12월 26일부터 30일까지 전시된 서울사이버국제디자인대전의 수상작들 중 유독 관람객들의 관심을 끄는 작품이 있었다. 바로 대상을 수상한 김민지, 변은영, 정수연 씨의 공동작품인 <Take-out space>이었다. 스마트폰에서 손가락을 움직일 때마다 공간 사진을 출력하기도, 새로운 공간을 만들기도 하는 영상은 마치 마술을 보는 느낌이었다. 글 | 편집부



김민지 공간을 순간이동하는 느낌을 만들어 내고 싶었어요. 스톱모션을 활용하니 재미도 있었고, 시공간의 뒤틀림을 표현하기에 적합했던 것 같아요.

변은영 작품의도라고 하면, 저희들의 전공이 공간디자인이니까 공간을 소재로 한 새로운 시선을 담아보고 싶었다고 하는 게 맞을 것 같아요. 그리고 무엇보다 재미있는 영상을 만들어 보고 싶었구요.

정수연 영상을 보면 먼저 스마트폰으로 기억하고 싶은 공간을 사진으로 찍어요. 그리고 찍은 사진들을 보다가 마음에 드는 사진이 있으면 출력을 하죠. 그 출력한 사진 속 공간을 또 다른 사진 속 공간에 넣는 거예요.

2분 45초의 짧은 UCC 영상이 서울사이버국제디자인대전에서 대상을 차지했다. 그래픽디자인, 멀티미디어디자인, 타이포그래피 세 부문을 통합하여 선정된 대상의 수상자는 <Take out space>를 공동작품으로 출품한 김민지, 변은영, 정수연 씨. 이들은 홍익대학교 산업미술대학원 공간디자인과 학생들이다.

먼저 김민지 씨가 수상소감을 밝혔다. “저희가 수상자 명단에 올랐을 때도 부문 내에서 수상한 것인 줄 알았어요. 통합 대상이라는 말에 많이 놀랐죠. 사실 출품 전에 은영이가 ‘우리 이거 출품하면 무조건 대상이다’라고 장난삼아 말했었는데, 정말 꿈이 현실로 이루어졌네요.”

변은영 씨는 작품의도에 맞게 많은 사람들이 동영상을 재미있게 봐준 것 같아서 성공한 것 같다고 말했다.

“작품의도라고 하면, 저희들의 전공이 공간디자인이니까 공간을 소재로 한 새로운 시선을 담아보고 싶었다고 하는 게 맞을 것 같아요. 그리고 무엇보다 재미있는 영상을 만들어보고 싶었구요.” 정수연 씨는 흥미로웠던 작품의 내용을 설명했다.

“영상을 보면 먼저 스마트폰으로 기억하고 싶은 공간을 사진으로 찍어요. 그리고 찍은 사진들을 보다가 마음에 드

는 사진이 있으면 출력을 하죠. 그 출력한 사진 속 공간을 또다른 사진 속 공간에 넣는 거예요. 내가 원하는 디자인을 넣어 기존의 공간을 새로운 공간으로 창출해 내는 것이죠. 한마디로 공간을 테이크아웃해서 내 것으로 만들고 자기 자신이 그 공간 속에 들어가고 싶으면 새로운 공간을 다시 만들어 방문할 수 있게끔 하는거죠.” 이 작품은 동영상으로 직접 촬영을 한 것이 아니라 한 컷 한 컷의 사진을 찍어서 모은 다음에 움직이는 영상처럼 만드는 스톱모션 기법을 활용했다. 그래서 2분 45초의 영상을 위해 찍은 사진만 2만여장에 이른다.

● 사람의 시선으로 공간을 이동하다

“공간을 순간 이동하는 느낌을 만들어 내고 싶었어요. 스톱모션을 활용하니 재미도 있었고, 시공간의 뒤틀림을 표현하기에 적합했던 것 같아요. 주로 카메라로 연사촬영을 했는데 연사촬영이 가능한 프레임 수도 한정되어 있어서 똑같은 위치에서 다시 설정하는 것이 어렵더라고요.” 김 씨는 제작과정의 에피소드를 털어냈다. “제작과정이 두 달 정도 됐어요. 아직 학생이다 보니까 틈틈이 시간을 내서 작업했거든요. 작품 내의 공간들은 전부 홍대 근처에서 촬영한 것이예요. 사실 장

소섭외에 어려움이 많았어요. 예쁘게 인테리어가 된 상점을 찍고 싶어도 꺼려하는 경우가 있었거든요. 그리고 수연이의 손이 영상에서 중심으로 나오는데 처음에는 손 연기까지 어색할 정도였어요.” 손을 움직이지 않고 화면 내에 항상 같은 위치에서 고정되어 있어야 했고, 사람의 시선을 중심으로 이동하면서 찍어야 했기 때문에 영상을 전공하지 않은 이들에게는 촬영 자체에도 어려움이 많았다고 했다. 하지만 공동작품을 하는 내내 훌륭한 팀워크를 보였다. 작품성 있는 영상을 만들 수 있었던 것도 팀워크 때문이라고 말했다.

“디자인을 전공한 사람뿐만 아니라 예술을 하는 사람들이 주로 개인의 개성이 강한 경우가 많아요. 그래서 공동작품을 만들 때 더 어려운 점이 많죠. 저희 세 명이 처음으로 공동작품을 함께 해봤는데 환상적인 팀워크를 자랑한 것 같아요. 어느 한 명 빠지지 않고 적극적으로 촬영에 임했거든요.”

공간을 다루는 것이 이들의 전공이지만 이번 작품을 통해 영상을 접해보면서 공간에 대한 생각을 표현하는 방식이 다양해질 수 있음을 배웠다고 전했다. 어느덧 졸업 앞둔 세 수상자가 다음에는 어떤 새로운 공간을 탄생시킬지 기대된다. ■

멀티미디어디자인학과 차명희 교수 & 제자 이용목 동문(2012년 졸업)

작품과 학구열이 맺어준 인연, “늘 설레는 마음이에요”

우리나라 사이버대 최초인 멀티미디어디자인학과는 디자인 특성화 학과로서 최신 디자인과 미디어 트렌드에 맞도록 교수들 모두가 실무 전문가 입장에서 학생들을 가르치고 있다. 그 중, 차명희 교수와 이용목 동문은 남다른 사제지간의 정을 키워왔다. 호기심과 열정을 가진 제자, 그 제자를 더욱 자랄 수 있도록 이끌어주는 스승. 그들의 따뜻한 이야기를 들어보았다. 글 | 편집부



이용목 동문 저는 디자인과 콘텐츠 분야의 직장을 다니고 있었는데 더 공부하고 싶었어요. 그래서 직장을 다니면서 다닐 수 있는 곳이 없을까 고민 끝에 선택하게 된 곳이지요. 차명희 교수님과는 영상미디어아트 수업을 수강하면서 알게 되었어요. 카랑카랑한 목소리와 쉽고 핵심적인 강의에 쑥 빠져버려서 교수님께 완전히 매료됐어요.

차명희 교수 내 목소리가 좀 카랑카랑하고 잠도 안오죠? 아무래도 사이버대학이다 보니 직접 대면하는 수업이 아니라서 어려움이 있죠. 강의실에서는 피드백이 원활하게 이뤄지는데 온라인에서는 질문에 대한 답이나 작품에 대한 피드백

이 원활하지 못한 경우가 있어요. 그래서 지루하지 않도록 최대한 실무적인 것과 핵심적인 것들을 다루죠. 이용목 학생의 높은 학구열이 예뻐보여서 저도 적극적으로 가르쳐주고 싶었죠.

적성을 찾은 곳에서 스승을 만나다

이용목 동문 교수님께 예뻐 보이려고 일부러 그런 건 아니었는데 예쁘게 봐주셔서 감사해요. 그간 해보지 않았던 영화작업을 새로 시작하려다보니 어려움이 많았어요. 제가 공부했던 디자인이나 콘텐츠 분야와는 비슷한 것도 있지만 완전히 달

랐거든요. 많이 헤매고 있었는데 교수님께서 이런 저런 실무적인 도움을 많이 주셨어요. 특히 학교에서 주최하는 서울사이버디자인대전에 작품을 출품하면서 더욱 가까워졌죠. 교수님 덕분에 영화UCC 부문 은상까지 수상해서 교수님께 예뻐움을 좀 받았죠.

차명희 교수 사실 제가 아니라 다른 교수님 지도 학생이었는데 용목 학생이 자주 전화하고 이메일로 수업에 대한 질문을 하거나 본인 작품들을 보여주면서 도움을 청하기에 교수로서 당연히 도와야한다고 생각했죠.

이용목 동문 그래서 제 지도교수님이 좀 서운해 하셨어요. 하하. 교수님을 잘 만난 덕분에 대학원에 진학하는 데에도 큰 도움이 되었어요. 편집이나 기술적인 부분은 물론이고 영상을 대하는 마인드에 대해서도 배우게 됐어요. 학교 공모전에 냈던 작품의 경우 다른 학생들은 대부분 집이나 다른 곳에서 작업을 하고 학교에 오는 일은 거의 없죠. 그런데 저는 교수님께서 학교 시설이나 기자재를 마음껏 사용하게 해주셔서 더 좋은 영상을 만들 수 있었던 것 같아요. 사실, 서울사이버대학교가 갖춘 시설을 보고 좀 놀랐어요. 너무 좋더라고요. 그래서 마음껏 활용했죠. 교수님도 마음껏 괴롭(?)혔고요. 대학원도 이 분야에서 좋은 학교를 많이 알아봐주시고 입학지원서 낼 때에도 포트폴리오와 인터뷰 준비를 꼼꼼히 봐주셨어요.

차명희 교수 입학할 때는 입학지원서를 주로 보고 판단을 하게 되죠. 대학원이란 곳이 아무래도 자신이 연구하고자 하는 게 확실하니까 지도해 줄 교수님들을 보고 선택을 하게 되잖아요. 더구나 우리는 시각적인게 가장 주를 이루기 때문에 자신의 작품을 갖고 포트폴리오를 얼마만큼 영향력 있게 만드느냐가 중요해요. 그래서 포트폴리오 구성이나 제작, 인터뷰 같은 것들을 학교별로 알맞게 봐줬어요.

진로 고민도 함께 나누고 등대가 되다

이용목 동문 영상과 디자인은 혼자 하는 데 한계가 있거든요. 그런데 교수

님은 사이버대의 단점인 오프라인으로 학과생들과 만나기 힘들다는 걸 극복하려고 학생에게 먼저 다가와 주셨어요. 멘토링과 학기 중 공모전 특강을 해주시면서 학과 학생들과 자주 만나 주셨죠. 교수님도 바쁘실텐데... 그런 면이 존경스럽고 더 교수님을 따르게 됐어요.

차명희 교수 학교 공모전이나 대외적인 공모전이 있을 때 공모전 특강을 일주일에 한번씩 진행해요. 특강을 준비해야 하니까 더 바쁘긴 해요. 그리고 학생들도 실무자들이 많이 있어서 교수이지만 학생보다 더 공부를 많이 해야 하는 것도 있죠. 사이버대는 특성상 대면 수업이 없어요. 그런데 미디어와 디자인 분야는 대면 수업을 해야 효과가 크거든요. 학과 게시판 통해서 긴밀한 관계를 유지하려고 하지만 한계는 있죠. 그래서 사진 동아리나 공모전 대비반, 영상 동아리 같은 소모임을 구성해서 학생들의 작품을 보고 온라인의 한계를 최대한 줄이려고 노력해요.

용목 학생은 성실하고 예의바른 학생이에요. 일과 학업에 대한 열정도 넘치고요. 교수 입장에서는 많이 질문하고 작품 봐달라고 하는 학생에게 눈길이가고 더 챙겨주고 싶거든요. 지금까지 그렇게 학교생활을 한 것처럼 앞으로도 자신이 목표한 걸 잊지 말고 이룰 수 있도록 노력했으면 좋겠어요. 자신이 취약한 분야에 대해 더 공부하고 좋은 영화 한편 만들어주었으면 하는 바람이에요.

이용목 동문 교수님 수업을 듣거나 영화나 영상 이야기를 나누면 굉장히 설레요. 마치 여친(?)과 대화하는 것 같은 그런 느낌이에요. 처음에 학교 특성상 적응을 잘 못했는데 교수님이 계셔서 얼마나 다행이었는데 몰라요. 중도 포기도 생각했었는데 교수님께서 응원해주시고 힘을 주셔서 새로운 마음으로 다시 해보자는 생각이었죠. 다독여주고 이끌어주셔서 깊이 감사드려요. 더욱이 제 꿈을 찾아갈 수 있도록 등대처럼 길을 더욱 밝혀주신 것 같아서 이렇게 발전할 수 있었던 것 같아요. 📷

이용목 동문 - 영상과 디자인은 혼자 하는 데 한계가 있거든요. 그런데 교수님은 사이버대의 단점인 오프라인으로 학과생들과 만나기 힘들다는 걸 극복하려고 학생에게 먼저 다가와 주셨어요. 멘토링과 학기 중 공모전 특강을 해주시면서 학과 학생들과 자주 만나 주셨죠. 교수님도 바쁘실텐데... 그런 면이 존경스럽고 더 교수님을 따르게 됐어요.



차명희 교수 - 사이버대는 특성상 대면 수업이 없어요. 그런데 미디어와 디자인 분야는 대면 수업을 해야 효과가 크거든요. 학과 게시판을 통해서 긴밀한 관계 유지하려고 하지만 한계는 있죠. 그래서 사진 동아리나 공모전 대비반, 영상 동아리 같은 소모임을 구성해서 학생들의 작품을 보고 온라인의 한계를 최대한 줄이려고 해요.



오래도록 흔들리지 않고 한길만을 꿰뚫어 건져 '뿌리 깊은 나무'라는 부동산학과 멘토링그룹. 그 결의와 집념이 아름답다.

부동산학과 멘토링그룹 '뿌리 깊은 나무'

이심전심으로 꾸려온 시간 “마지막까지 함께 하기로 약속해요!”

멘토링에 있어 정답이란 없다. 하지만 모범은 있다. 부동산학과 멘토링그룹 가운데 '뿌리 깊은 나무' 조가 바로 그 주인공이다! 묵묵히, 그럼에도 각자의 본분에 최선을 다하는 것이 비결이라는 그들을 지금 바로 만나보자. 글 | 편집부

지난 2012년 8월 18일, 서울사이버대학교에서 아주 특별한 행사가 펼쳐졌다. 바로 'SCU 멘토링 프로그램에 대한 1학기 평가회 및 2학기 결연식'이었다. 이 자리에서 '뿌리 깊은 나무' 조 문문환 멘토는 수기 부문 대상을 수상하는 영광을 차지하며, 뜨거운 갈채를 한 몸에 받았다.

멘토링의 진수를 보여준다

일동 멘토님, 진심으로 축하드려요!

문문환 모두 다 여러분들 덕분입니다(웃음). 저뿐만이 아니라 '뿌리 깊은 나무' 조의 경사이죠. 참, 꽃다발 고맙습니다. 너무 아름다웠어요.

사수영 그동안 멘토님이 보여주신 열정과 헌신을 생각하면, 오늘과 같은 결과 누리실 자격 충분하십니다. 대단한 혜택이 주어지는 것도 아닌데, 늘 멘티들 위해 발로 뛰시는 것 보면 참 놀랍고 존경스럽습니다.

라인숙 동감해요. 사이버대학은 시스템의 특성상 공부하는 방법이 타 교육기관과 차이가 있을 수밖에 없는데, 그 노하우는 사실 경험하지 않으면 절대 알 수 없는 비책과도 흡사하죠. 그럼에도 불구하고 멘토님은 그에 관한 내용을 끊임없이 전수하며 멘티들을 독려하십니다. 요컨대 '학습의 길라잡이' 시랄까요? 하하.

천정자 저는 아직도, 멘토님과 첫 대면 당시를 잊을 수가 없

어요. 기억들 나시죠? 저희에게 선물 나누어 주셨잖아요, 멘토님.

라인숙 아, USB!

천정자 네, 그것도 학업에 도움이 될 만한 자료 및 정보가 정갈하게 정리되어 있는 파일을 담고 있는 USB였죠. 오로지 저희만을 위해 밤새 만드셨다는 이야기를 나중에야 전해 들었는데……, 정말 감동적이었습니다.

문문환 실은 제가 신입생이었을 때 가장 받고 싶은 선물이었거든요. 리포트 작성법, 강의별 필기법 등 기본만 파악하고 있으면 한결 수월하게 학교생활에 적응할 수 있지 않을까 하여 고민 끝에 결정한 것이었습니다.

천정자 제 보물 1호랍니다! 하하하.

서로가 서로에게 든든한 버팀목

사수영 저는 입학 전 실시되는 '서울사이버대학교 학과 특강'을 통해 멘토님을 처음 뵈었는데, 프리젠테이션하시는 모습이 굉장히 인상적이었습니다. 단정한 목소리에서부터 자신감이 엿보이는 제스처까지, 여러모로 신뢰가 갔죠. 그래서 '뿌리 깊은 나무' 조 멘티에 합류하기 위해 세 차례나 신청했는데, 모조리 탈락되었다는 연락을 받았습니다. 바로 주저지 때문이었죠. 참고로, 저는 직업군인이라 현재 강원도 양구에 머물고 있습니다. 솔직히, 속상했습니다. 그때! 멘토님이 제 손을 먼저 잡아주셨죠(미소).

문문환 모든 것이 낯설고 두려운 상황에서 소외되기까지……, 수영 멘티님 사정 전해 듣고 나니 제 마음이 무거워서 도저히 가만있을 수 없었죠. 해서 '우리는 전혀 상관없으니, 함께하자' 권유했습니다.

사수영 멘토링의 효율성을 높이기 위해 지역을 바탕으로 조를 구성하는 학내 논리를, 이해 못하는 바는 아닙니다. 다만, 특수한 여건에 처해 있는 소수의 멘티도 존중받을 수 있도록 체계가 마련되기를 바랄 뿐입니다. 문문환 멘토님이 아니었다면 저, 아마 휴학이나 자퇴했을지도 모릅니다.

문문환 상상만 해도 무시무시합니다, 하하! 하지만 거리는 중요치 않다고 생각합니다. 직접 보지 않아도 소통할 수 있는 수단이야 무궁무진하기 때문이죠. 수영 멘티님 외에도 대구며 전주 등 '뿌리 깊은 나무' 조 멤버들 거주지는 그야말로 각양각색입니다만, 한 번도 불편하다거나 번거롭다고 여긴 적은 없습니다.

라인숙 오히려 더욱 적극적으로 활동할 수 있죠. 오프라인모

임의 경우만 해도 '어려운 걸음 해야 하는 사람도 있는데, 참여하지 않을 수 없지' 싶어 한층 성실히 임하게 됩니다.

천정자 맞아요. 언제든 얼굴을 더 볼 수 있는 위치라면 '다음에 만나지, 뭐!' 하며 지나치기 일쑤죠. 그런데 저희는 먼 곳에서 와야하는 멤버에게 미안해서라도, 부득이한 이유가 아닌 이상 불참은 절대 하지 말자는 주의예요. 멘토님이 오프라인 모임의 내실 강화를 위해 항상 철저히 준비하시는 것도 모르지 않기 때문이죠.

사수영 저로서는 항상 감사할 따름입니다.

문문환 시간과 에너지가 아깝지 않은 모임이 되어야 하지 않을까 싶어 꾸준히 노력하고는 있습니다. 멘티님들의 긍정적인 협조와 성원이 큰 힘이 되고 있다는 점, 아시죠? 졸업하시는 순간까지 이 분위기 계속 유지하도록 해요, 우리!

일동 염려 마세요, 멘토님!

● 문문환 멘토



● 사수영 멘티



● 라인숙 멘티



● 천정자 멘티



이인에 동문은 상담심리사를 하면서도 현재에 안주하지 않는다. 무엇이든 하고자 하면 뜻을 이뤄내는 열정은 그녀를 더욱 다정다감하고 소통하는 상담사로 이끌어가고 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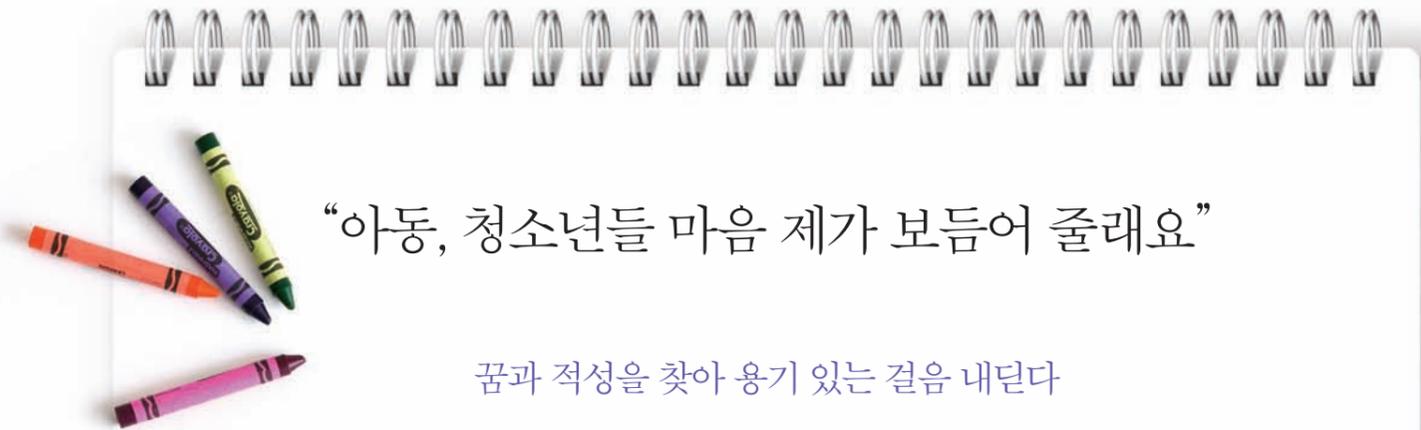
청소년상담사로 교사의 길을 걷는 이인에 동문 (상담심리학과 2012년 졸업)

청소년상담사와 직업상담사 자격 취득 상담교사의 꿈 이루다

아동 청소년과 노인 문제의 근본적 해결을 위한 심리상담사가 늘고 있는 추세다. 직업도 다양해진 만큼 직업상담사도 각광을 받고 있는데, 특히 아동 청소년의 심리 상담을 위해 각 시도교육청에서는 심리상담사, 청소년상담사 등을 학교에 배치해 심리안정과 인성교육을 도모하고 있다. 상담심리학과를 졸업하고 청소년상담사 자격을 취득해 상담교사의 길을 걷는 이인에 동문을 만나 학습과 진로 노하우를 들어보았다. 글 | 편집부

2012년 2월, 서울사이버대학교 상담심리학과를 졸업한 이인에 선생님은 지난 2010년 3월에 입학해 직업상담사 자격증을 취득하고 2012년 청소년상담사 자격증을 취득해 학교에서 아이들과 만나고 있다. 처음 타 대학에 입학 했을 때에는 증권금융학과에 입학했지만 적성에 맞지 않는다고 판단해 고민 끝에 상담심리사가 되기 위한 공부를 다시 하게 되었고, 여러

학교를 알아보던 중 지인으로부터 서울사이버대학교 상담심리학과가 전통있고 커리큘럼도 좋다는 말을 듣고 도전하게 되었다고 한다. 처음 상담심리를 공부하게 된 건 교회에서 주일학교 교사를 하면서 편입을 고민 하던 중, 적성을 찾기 위해 이것저것 알아보다가 유망직종이기도 한 상담심리에 관심을 갖게 되었다고 한다.



“아동, 청소년들 마음 제가 보듬어 줄래요”

꿈과 적성을 찾아 용기 있는 걸음 내딛다

이인에 선생님은 “교회를 다니며 주일학교 교사를 하고 있었는데 그게 더욱 적성에 맞는 것 같았어요. 그 시간만큼은 늘 기다려지고 아이들을 만나는 시간이 즐거웠어요”라며 상담심리사의 길을 걷게 된 배경을 말했다. 그녀는 상담심리 공부를 하면서 직업상담사 자격을 취득했다. 심리학, 직업정보론, 직업상담 등을 공부하며 직업상담 실무에 대한 2차 시험까지 통과했다. 이후 서울사이버대학교를 다니면서 상담심리에 대해 더욱 뜻이 깊어졌다고 한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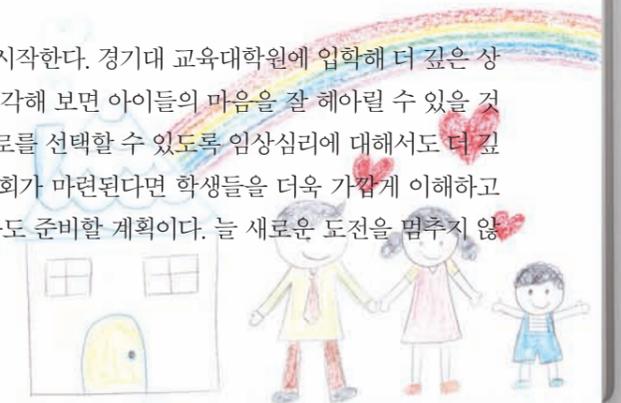
“임상심리와 상담심리 수업을 들으면서 더 깊이 알게 됐죠. 교수님들 모두 이 분야의 전문가이어서 실제적인 이야기를 많이 해주시고 학과에서 가졌던 청소년상담사 모의 면접이 도움이 많이 되었어요”라고 말하는 그녀는 커리어를 쌓고 스스로 당당해져서 일해야 한다고 말한다. 학교에 재직중이면서 2012년 3월에는 청소년상담사 자격증까지 취득하게 됐다. 청소년상담사는 응시 자격 요건이 까다롭기로 정평이 나왔다. 하지만 그녀는 인터넷 강의를 듣고 저소득층의 상담 자원 봉사활동을 다니며 응시요건을 충족시켰고 스스로 이론 공부도 하며 내공을 쌓았다.

지난 2010년부터는 본격적으로 상담심리를 배우며 상담자원봉사활동과 저소득층 상담활동 및 고천초등학교 인턴전문상담교사를 하며 상담심리사의 길을 걷게 되었다. 그녀가 학교에서 상담교사를 하게 된 것은 얼마 되지 않았다. 초등학교 인턴전문상담교사 공고를 통해 처음 고천초등학교와 인연을 맺은 후 실무경력으로 매탄초등학교와 수내중학교에서 학생들을 만나게 되었다. 그녀는 저소득층 가정의 상담활동을 하며 “학부모님들이 무시하는 경우도 있었고 막말을 하여 많은 심리적 어려움을 겪었죠”라며 다른 사람의 고민과 이야기를 들어주는 것이 결코 쉽지 않은 일이란 것을 알았으며 고충을 털어놓았다. 그러나 어렵게 찾은 일인 만큼 끝까지 버텨야 한다고 자신을 다독였고 아이들의 마음을 열기 위해 더 노력하게 된다고 덧붙였다.

좋은 일 한다는 자부심... 그녀의 꿈은 현재 진행형

그녀는 욕심이 많은 능력자이다. 무엇이든 하고자 하면 뜻을 이뤄내는 열정은 그녀를 더욱 다정다감하고 소통하는 상담사로 이끌어가고 있다.

이인에 선생님은 2013년 3월 더 큰 꿈을 위한 발걸음을 또 시작한다. 경기대 교육대학원에 입학해 더 깊은 상담심리 교육의 길을 가게 된다. “제가 실패했던 경험들을 생각해 보면 아이들의 마음을 잘 헤아릴 수 있을 것 같아요. 아이들이 조금 더 좋은 환경과 안정된 마음으로 진로를 선택할 수 있도록 임상심리에 대해서도 더 깊이 있게 공부할 계획이에요”라며 환하게 웃는다. 더불어 기회가 마련된다면 학생들을 더욱 가깝게 이해하고자 가정방문도 하고 싶다는 그녀는 중등교사 상담임용고사도 준비할 계획이다. 늘 새로운 도전을 멈추지 않는 그녀의 눈빛이 빛난다.



SCU 서울국제포럼-프랑스 툴루즈II 대학 사회학과 교수 초청 학술포럼

서유럽 내 출산율 최고 기록한 프랑스 비결은 일-가족 양립정책 덕분

2012년 11월 22일 서울사이버대학교 본관 2층 국제회의실에서 <한국과 프랑스의 여성 및 빈곤정책>이란 주제로 국제학술포럼이 개최됐다. 이번 학술포럼은 프랑스 툴루즈(Toulouse) II 대학의 사회학과 라베이르(Nathalie LAPEYRE) 교수와 자르띠(Julie JARTY) 교수를 초청하여 프랑스의 복지정책에 대한 이해와 함께 한국의 복지정책과 비교할 수 있는 소중한 시간이었다. 글 | 편집부



툴루즈(Toulouse) II 대학은 프랑스 남부 툴루즈(Toulouse)라는 도시에 위치한 인문과학대학이다. 프랑스의 대학들은 모두 국립대학이다. 툴루즈 I 대학이 사회과학대학이고, II 대학이 인문과학대학, III 대학이 자연과학·의과대학이다. 이번에 초청한 라베이르(Nathalie LAPEYRE), 자르띠 (Julie JARTY) 교수는 툴루즈 II 대학, 즉 인문과학대학 사회학과 교수이다. 서유럽 대부분의 국가들은 우리나라와는 달리 따로 '사회복지학과'가 없고 사회학과에서 사회복지라는 카테고리 내에서 사회복지의 내

프랑스 툴루즈 II 대학 사회학과 교수들을 초청하여 개최한 국제학술포럼을 통해 선진 복지국가 시스템을 비교하고 그 시사점을 배울 수 있었다.



용을 다루고 있다.

여성이 일할 수 있는 파라다이스 만들기
실제로 지난 10여 년간 프랑스의 출산율은 2.0명으로 서유럽 국가들 중에서

최고를 나타냈다. 과거 1960~70년대 프랑스 여성들이 아이를 낳기 원치 않았던 것과 비교하면 괄목할만한 성과이다. 현재 우리나라의 출산율이 1.4명 수준에 머무르는 것과 비교할 때 프랑스의 출산율을 증가하게 만든 가족정책은 살펴볼 만하다. 프랑스의 가족정책은 출산율, 여성 고용 등을 깊게 다루고 있으며 육아와 관련한 정부보조가 잘 되어있어 프랑스 여성은 늦은 나이에 아이를 출산한다. 프랑스는 OECD 국가 중 GDP 대비 가족정책에 대한 투자가 가장 많은 나라로 꼽힌다.

일-가족 양립정책은 평등의 관점에서 아직 부족

첫째로 주제발표를 맡은 라베이르 교수는 <프랑스의 일-가족 양립정책(유연화정책)>에 대한 전반적인 소개와 함께 그에 따른 문제점을 지적했다. 프랑스는 지난 10여 년 간 가족정책에서 대단한 혁신을 이루어 왔다. 출산과 육아 지원을 위한 '15일의 아버지 출산휴가', '부(父)의 육아개념 확립' 등이 그 예다. 하지만 라베이르 교수는 일-가족 양립 정책에 있어 많은 공리주의자들이 1946년 프랑스 헌법에 명시된 남녀평등의 시각을 잃어버렸다고 지적했다. 여성들에게 전적으로 귀속된 돌봄의 임무와 돌봄의 방법에 접근하는데 있어서의 사회적 불평등, 공공탁아소의 부족, 개별화된 돌봄에 있어 그 주변의 일들에 대한 인식과 직업화의 부족 등으로 프랑스는 파라다이스에서 멀리 떨어져 있다는 것이다.

한부모가정의 경제적 열악성 해결 중요

둘째로 자르띠 교수의 <유럽국가군에서의 한부모가정의 상황>에 대한 발표내용은 세 가지의 주요 주제로 구성됐다. 첫째, 유럽국가군에서 나타나는 서로 다른 한부모가정의 특성, 둘째, 한부모가정에 처해있는 유럽여성들이 겪고 있는 구체적인 문제, 셋째, 경제적·재정적 관련 속에서 한부모가족에 대한 현재의 정책적 목적에 대한 관점을 제시하는 것이었다. 이러한 문제에 대한 답으로 우선 수입의 결손을 최소화하는 것과 여성들의 삶에 있어 자녀들을 돌보는데 있어서 제기되는 어려움을 제한하는 것을 제시했다. 그리고 한부모가족이 '사회적 투자'로 이야기되는 전망에 대해서 '젠슨(Jenson)은 차후 실질적인 청소년과 아

동들의 복지에 초점을 맞춘 여성노동의 긍정적 평가를 고발하고 있다. 그녀는 모성과 엄마-아동의 관계를 중심으로 한 본질주의적 사고로의 회귀를 보았다'고 설명하면서, '이렇게 여성들은 얼마 전까지도 자녀들의 심리적 안정을 위해 가정에 머물렀고, 현재는 자녀들의 통합의 기회를 용이하게 하기 위해 노동시장에 투입을 강요받고 있다'고 결론 맺었다.

이번 학술포럼은 사회복지 부문에서 뒤쳐져 있는 우리의 현실에서 서유럽의 또 다른 국가, 다른 시스템에 대해 알 수 있었던 좋은 기회였다. ■

Mini Interview

사회복지학과 이문숙 교수

지속적인 학술교류로 선진 복지정책의 간접경험 기회 제공



이문숙 교수는 지난 1년 동안 프랑스 툴루즈 II 대학 사회학과에서 연구년을 보냈다. 프랑스에 머무르는 동안 서울사이버대 학생들에게 유럽의 사회복지시스템을 알려줄 수 있는 방법을 고민했다.

"이미 스톡홀름대학의 교수님들을 초청해 학술포럼을 여러 차례 열었던 터라 학교에서 프랑스 대학 교수님의 초청을 전폭적으로 지원해 주었습니다. 라베이르 교수와 자르띠 교수가 처음으로 한국을 방문하면서 저에게 '강남스타일'을 말하더군요. 두 교수님은 한국을 동북아의 작은 나라로만 여기

다가 이번 방문을 통해 한국의 발전된 모습에 많이 놀라기도 했습니다. 두 교수님은 프랑스의 젊은 학자입니다. 앞으로 우리 대학과의 지속적인 교류 등을 고려하여 많은 연구활동을 하게 될 젊은 학자들을 초청하게 되었습니다."

이번 학술포럼으로 스웨덴과 프랑스의 복지정책을 비교해 볼 수 있는 기회가 되었다고 이 교수는 평가하고 있다. 이미 몇 차례에 걸친 스웨덴 스톡홀름 대학 교수들의 특강으로 재학생들은 어느 정도 최고의 선진 복지국가 시스템을 접해볼 수 있었다는 것이다. 같은 유럽 내에서도 사회복지의 시스템과 양상이 조금씩 다르기 때문에 이러한 점을 파악할 수 있는 시간이었다.

"스웨덴이 프랑스보다 복지수준이 뛰어나지만 스웨덴과 프랑스의 복지정책의 기본은 가족정책으로 같습니다. 스웨덴의 복지정책이 민주적이고 자유주의적이라면 프랑스는 조금 더 보수적이라 할 수 있어요. 미비점들도 있지만 우리나라 보다 앞선 정책을 가지고 있다는 것에는 의심할 여지가 없습니다."

이문숙 교수는 이번 포럼 동영상은 인간복지학부 세 학과의 홈페이지에 업로드되었고, 초청된 교수들의 발표 내용은 번역과 편집과정을 거쳐 수업에 활용될 것이라고 설명했다.

함께 나누는 이웃, SCU WAVE 사회봉사단

헌 옷 아닌 희망 드리고 싶어요! The Big Dream

지난 2012년 1월 서울사이버대학교는 '모두가 함께 나눠서 기쁨을 줄 수 있는 삶', '함께 더불어 사는 삶'을 꾸리기 위해 사회봉사단 'SCU WAVE'를 창단했다. 서울캠퍼스를 비롯해 대구, 인천, 강원, 광주 캠퍼스 등 지역캠퍼스에서도 SCU WAVE 사회봉사단은 약 1년 남짓한 시간 동안 활발한 봉사를 실천하고 있다. 글 | 편집부



전국으로 퍼져 있는 서울사이버대학교 SCU WAVE 사회봉사단은 앞으로도 다양한 봉사활동을 통해 따뜻한 사랑의 물결을 계속 전파할 예정이다.

봉사의 미덕은 백 번 강조해도 모자랄 것이다. '모두가 이웃'이라는 삶의 모토는 사람과 사람 사이의 정을 두텁게 하고, 그로 하여금 세상을 더욱 아름답게 볼 수 있는 맑은 '마음의 눈'을 얻기도 한다. 서울사이버대학교에서도 이와 같은 생각을 지닌 사람들이 제법 모여 있다. 뜻이 맞는 사람들이 하나 둘 모이다 보니 금세 사회봉사단 하나가 만들어진 것이다. 주인공은 바로 'SCU WAVE 사회봉사단'이다. '사랑은 비를 타고 오가는 게 아니라 물결을 타고 오간다'는 그들이 모인 곳은 청계광장이었다.

2012년 10월 13일, 서울 청계광장에서 노숙인을 위한 시민 참여형 의류기증 행

사인 '더 빅 드림(The Big Dream)'이 열렸다. '더 빅 드림'은 노숙인들의 자존감 회복과 위생 관리를 돕기 위해 기획된 '헌옷 모으기' 행사였다. SCU WAVE 사회봉사단은 창단 이후 재학생과 교직원 이 함께 필리핀으로 해외봉사를 떠나기도 했지만, 이처럼 모두가 참여할 수 있는 사회봉사에도 참여하는 것이 좋겠다는 데 의견을 모았다고 한다. 행사에 참여한 SCU WAVE 사회봉사단은 "전국 노숙인 약 5,000여 명 중 3,000여 명이 상이 서울에 있는 것으로 알고 있다"며, 청계광장에 설치된 대형의류 박스에 모인 옷을 분류하는 데 시민들과 더불어 일손을 도왔다. 또 "이렇게 분류된 옷들이 세탁과정을 거쳐 옷을 필요로 하는

노숙인 시설과 샤워장, 서울역 옷방에 전달될 예정"이라며, 헌 옷을 집에서 챙겨오는 봉사 참여자들도 눈에 띄었다. 봉사를 마친 SCU WAVE 사회봉사단은 이후 서울시가 주최한 '더 빅 드림 콘서트'에 참가하기도 했다. 노숙인 사물놀이패와 빅이슈코리아(노숙인들과 함께 만드는 잡지)를 후원하는 인디밴드의 공연을 관람하며, 봉사를 통한 즐거움을 학생들 모두가 함께 만끽했다. SCU WAVE 사회봉사단의 활약이 앞으로도 계속되기를 따뜻한 마음으로 빌어본다.

제1회 서울사이버대학교 총동문회장배 골프대회

함께 필드 걸으며 화합과 자긍심 키우는 동문

서울사이버대학교 동문들의 단합과 모교에 대한 자긍심을 고취시키기 위한 골프 축제가 2012년 11월 8일 경기도 여주 인근 한 골프장에서 열렸다. 학교 사랑을 몸소 실천하는 동문들의 자리가 이번이 처음은 아니지만, 스포츠를 통해 몸과 마음을 건강하게 가꿔나가는 골프대회는 서울사이버대학교 동문들에게 이색적인 소통의 장으로 기억될 것이다. 글 | 편집부



제1회 서울사이버대학교 총동문회장배 골프대회에 참가한 60여 명의 재학생과 졸업생들은 소정의 기금을 마련해 서울사이버대학교에 장학기금으로 기탁할 예정이다.



재학생과 동문간의 유대를 강화할 수 있는 방법은 다양하다. 학교를 오가며 서로 인사를 나누고, 덕담을 주고받고 친목을 도모할 수도 있지만 운동을 통해 서로의 정을 쌓아가는 방법도 있다. 이번 행사를 주관한 총동문회는 재학생과 동문이 한자리에 모여 함께 어울릴 수 있도록 골프 행사를 마련하였다. 서울사이버대학교 재학생과 졸업생이 타 대학 학생들보다 연령대가 높다는 점, 그리고 골프가 대중화된 여가활동으로 자리 잡으면서 많은 동문들이 모일 수 있다는 생각에서 비롯되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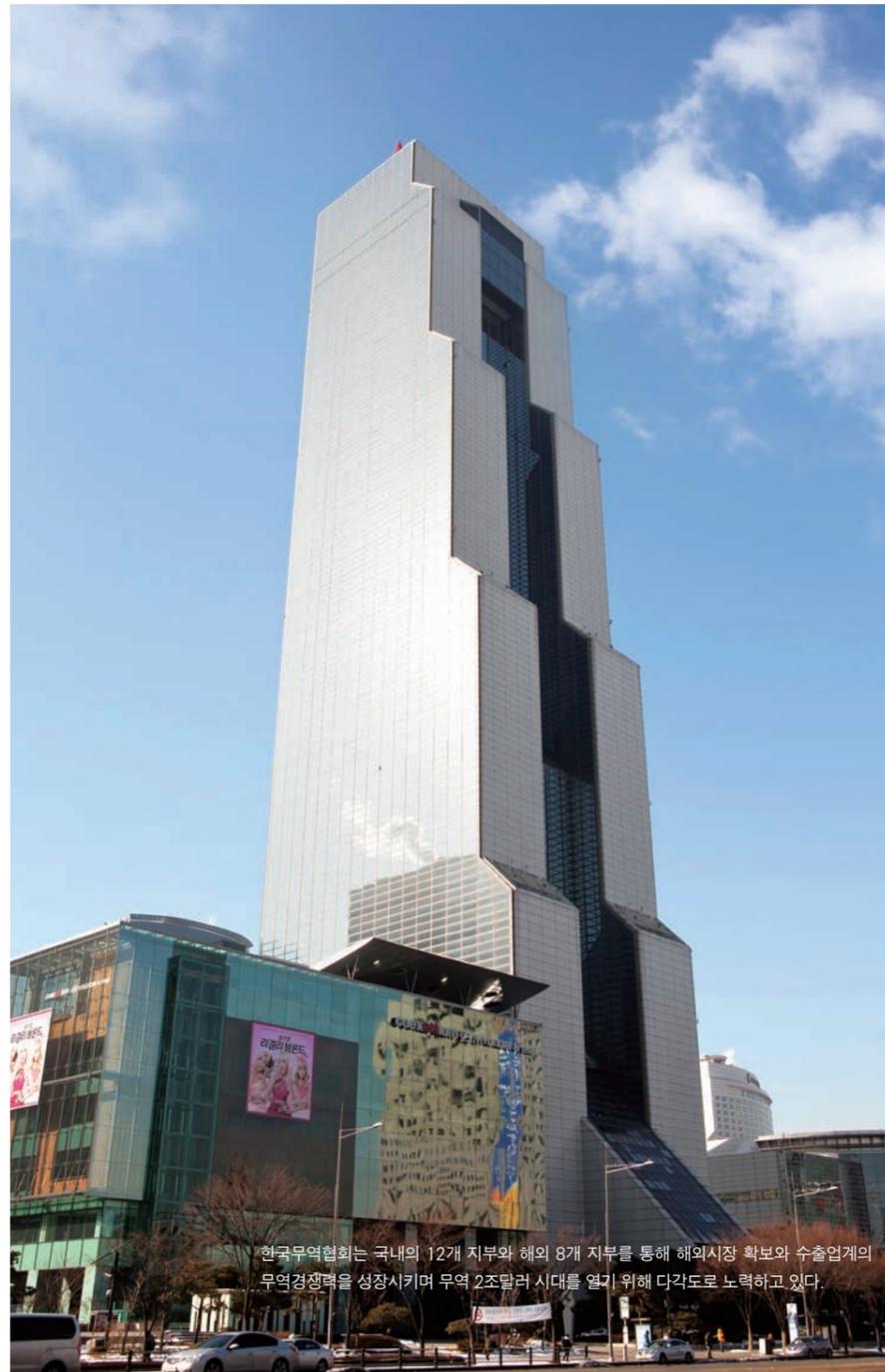
'제1회 서울사이버대학교 총동문회장배 골프대회'를 기획한 이은미 총동문회 사

무총장은 "사회에서 활발한 활동을 하고 있는 동문들이 모이는 자리가 쉽지 않았다고 말하며, "동문들이 많이 모여야지만 학교 동문회가 활성화될 수 있고, 또 이를 통해 학교를 위한 역할을 활발하게 할 수 있다."는 말도 덧붙였다. 날씨가 쌀쌀해지는 탓에 골프대회에 참여가 저조하지 않을까도 생각되었지만, 기우에 불과했다. 약 60여 명의 동문들이 참가하는 성황을 이루었고, 이들은 4~5명씩 팀을 이뤄 총 14개 팀으로 라운딩을 펼쳤다. 재학생과 졸업생은 푸근한 필드를 함께 걸으며, 학교에 대한 이야기와 서로의 근황을 나누며 어울렸다. 한편, 골프대회가 끝난 후에는 약 2

시간 가량 시상식과 모교 발전에 이바지할 수 있는 방안을 함께 이야기하기도 했다. SCU 골프 동호회에서도 활동하고 있는 윤광숙 학우는 "다양한 학과의 재학생과 졸업생들이 서로 가까워질 수 있는 계기가 되었다"고 참가 소감을 말하며, 이번 대회를 통해 더 많은 학우들이 'SCU 골프 동호회'에 관심을 보이고 가입이 이어졌다고 설명했다. 서울사이버대학교 총동문회는 앞으로도 일률적인 동문 모임을 지양하고, 골프대회를 매년 지속적으로 열어 함께 어울리고, 정을 쌓을 수 있는 다양한 친목의 계기를 마련해 나갈 예정이다.

SCU & 한국무역협회 서울사이버대학교와 MOU 체결

글로벌 무역환경 속 든든한 길잡이 한국무역협회



한국무역협회는 국내의 12개 지부와 해외의 8개 지부를 통해 해외시장 확보와 수출업계의 무역경쟁력을 성장시키며 무역 2조달러 시대를 열기 위해 다각도로 노력하고 있다.

한국무역협회는 1946년 창립 이래 무역진흥과 민간 통상협력 활동 및 무역인프라 구축을 통해 무역인의 신뢰받는 동반자 역할을 수행하고 있다. 7만여 회원사들의 무역활동을 지원하고 무역전문인력을 양성하는 한국무역협회가 지난 2012년 11월 말, 서울사이버대학교와 MOU를 체결했다. 글 | 편집부

우리나라의 무역 규모가 연간 1조 달러를 넘어섰다. 국가의 지속적인 경제성장을 위해서는 무역의 중요성을 빼놓을 수 없다. 세계 8위의 무역 대국으로서 국경 없는 세계 무역의 경쟁 속에서 한국무역협회는 우리나라의 무역 진흥을 위해 앞장서고 있다. 세계무역 환경의 악화 속에서도 7만여 회원사들의 무역활동 지원을 위해 해외시장 개척 지원, 무역친화적 정부제도 수립·집행 건의, 구체적인 피부에 닿는 다양한 회원 서비스 제공을 위해 노력 중이다.

무역전문인력 양성의 메카, 무역아카데미

무역아카데미는 한국무역협회가 운영하는 무역, 국제비즈니스 및 비즈니스 외국어 전문교육기관이다. 1965년 수출입국을 선도할 무역전문인력 양성을 위해 '수출학교'라는 명칭으로 설립되어, 그간 20만여 명

의 전문인력을 배출했다. 현재 무역실무, 국제마케팅, 비즈니스 외국어, 외환금융 등 4개 분야의 단기연수를 비롯하여 무역전문인력 양성을 위한 장기과정인 무역마스터과정, CEO를 위한 글로벌 물류비즈니스 최고경영자 과정을 운영하고 있다.

특히 무역아카데미에서 역점을 두고 있는 무역마스터 과정은 대학을 졸업한 미취업자를 대상으로 9개월간의 교육을 통해 무역전문가를 양성하는 교육프로그램으로 취업률 90% 이상을 자랑한다.

온라인 교육은 전담부서 및 스마트러닝 운영센터가 설립된 2010년부터 본격적으로 운영되었다. 삼성동 교육장에서 수강하기 어려운 사람들의 시공간적 제약을 해소하고 지방에 위치한 무역업체 임직원들에게도 쉽게 교육받을 수 있는 시스템이 필요하다는 생각에서 무역실무 뿐만 아니라 비즈니스 외국어, 마케팅, 직무능력 등 다양한 과정을 제공하고 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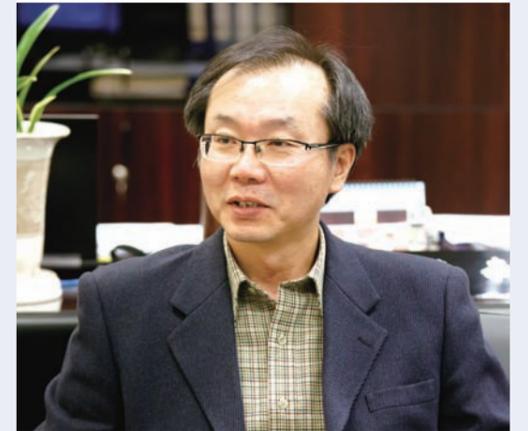
사이버대학과는 최초 MOU 체결

한국무역협회 무역아카데미는 온라인 전문교육기관과의 제휴를 통한 무역교육 저변 확대를 추구하고 있다. 무역아카데미에서는 대학생을 대상으로 한 무역교육의 일환으로 무역캠프 개최, 해외인턴 파견, 무역홍보대사 선발 등을 진행한다. 무역아카데미는 실무가 중심이 되는 교육기관이기 때문에 학문적 교육이 중심이 되는 대학과는 상호 보완적인 관계이다. 온라인 교육도 투자의 하나로 인식되는 만큼 전문기술을 공유할 수 있고 업그레이드할 수 있다는 점에서 사이버대학과는 처음으로 서울사이버대학교와 MOU를 체결했다. 이번 MOU 체결을 통해 상호 인증 교육과정 개설 및 운영, 교육분야 제휴 강화, 홍보마케팅 공조 등 다양한 분야에서 협력을 강화해 나갈 예정이다. 이를 통해 '무역교육 저변 확대와 특화된 글로벌 인재양성'이라는 목표 이외에도 양 기관의 협력을 통한 시너지 효과를 기대하고 있다. ☞

Mini Interview

이인호 한국무역협회 무역아카데미 본부장

세계 무역시장 선도할 인재 양성을 위해 협력해나갈 것



한국무역협회는 매달 1회 저명인사들의 아침강연을 듣는 화요포럼을 비롯하여 전 직원을 대상으로 다양한 공개강좌를 열고 있다. 직원 수가 270명 남짓이라 온라인 교육보다는 오프라인 교육이 활성화되어 있다.

“한국무역협회는 지속적인 자기계발을 통한 역량강화를 추구하는 기관입니다. 직원들이 개별화된 맞춤형 교육이 가능하도록 직무연수비도 지원하고 있습니다. 2011년부터는 무역아카데미 온라인 교육을 할인된 가격으로 직원들에게 제공하고 있으며, 직급별, 직무별로 체계화된 교육을 받을 수 있는 시스템을 마련 중입니다.”

이인호 본부장은 무역업체 재직자들을 대상으로 한 온라인교육의 수요는 앞으로 점점 더 커질 것이라 생각한다.

“e-learning에 있어서 가장 중요한 것은 콘텐츠입니다. e-learning은 많은 장점에도 불구하고 오프라인 교육에 비하여 학생들의 집중도가 떨어진다. 점이 가장 큰 약점입니다. 강사의 강의 스킬을 높이고 새로운 전달방식을 창안해 내어 학생들의 집중도를 얼마나 높일 수 있느냐가 사이버 교육의 성패를 좌우한다고 봅니다. 앞으로 콘텐츠 개발에 양 기관이 보다 많은 협력을 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무역아카데미는 2013년 지방 업체의 인력난을 해소하고 취업자들의 지방 취업을 장려하기 위한 인력양성사업을 중점적으로 진행할 계획이다.

EXHIBITION

불멸의 화가 II : 반 고흐 in 파리 축제 명화의 세계, 아는 것만큼 보인다



반 고흐라는 위대한 화가의 성장사에 있어서 가장 중요했던 파리 시기(Paris, 1886. 3-1888. 2)를 테마로 잡아 전시하는 특별전이 국내에서 개최되고 있다. 1853년 네덜란드에서 태어나 1890년 37세의 짧은 생을 마감한 반 고흐는 예술에 모든 생을 바친 불운한 천재 화가이다. 그의 예술을 학술적, 교육적 방법으로 심도 있게 조명하는 취지로 기획된 이번 전시는 10년이라는 짧은 화가로서의 생애에 예술적 토대를 이룬 가장 중요한 시기로 여겨지는 파리 시기의 유화작품 60여 점을 한자리에 모은 전시다. 비록 2년이란 짧은 기간이었지만 사실주의 화가였던 반 고흐가 시대사조를 뛰어넘어 동시대 예술의 선구자로서 변모해가는 가장 중요한 시기로 미술사적으로도 큰 의미가 있다.

- 장소 : 예술의 전당 한가람디자인 미술관
- 기간 : 2012. 11. 8 ~ 2013. 3. 24

MUSICAL

뮤지컬 레베카 고전 스릴러, 뮤지컬로 다시 태어나다



뮤지컬 '레베카'는 동명의 소설과 영화 원작을 바탕으로 탄생한 뮤지컬이다. 작품은 '나'가 부유한 남자 막심과 결혼한 뒤 '맨덜리의 대저택'에 들어서며 드러나는 미스터리한 이야기를 담는다. 고전 스릴러 영화로도 잘 알려져 있는 '레베카'(1940)는 거장 알프레도 히치콕 감독이 메가폰을 잡아 더욱 유명세를 탔다. 영화는 아카데미 작품상을 수상하기도 했다. 2006년 오스트리아 비엔나에서 초연된 후 일본, 러시아, 헝가리, 독일, 스위스, 루마니아 등지에서 공연되고 있다. 뮤지컬 '레베카'는 한국 초연이다. 이번 공연은 조금 더 탄탄한 모습으로 한국 관객을 만나기 위해 3년 동안의 제작 기간을 거쳤다. 뮤지컬 '레베카'의 인물은 세밀한 심리묘사가 중요한 만큼 캐스팅에도 많은 주목을 받았다. '나'와 사랑에 빠지는 남자 '막심' 역으로는 유준상, 류정환, 오만석이 출연한다. 뮤지컬 '레베카'에서 가장 큰 존재감을 선보일 캐릭터인 댄버스 부인 역은 옥주현과 신영숙이 함께한다.

- 장소 : LG아트센터
- 기간 : 2013. 1. 12 ~ 3. 31

NETIQUETTE

인터넷 토론과 논쟁 글 올리기 전 자기 검열은 필수

일반적으로 한국에서 '인터넷'은 '토론'이 가장 활발한 공간으로 묘사된다. 한편론 해소되지 못한 욕망이 들끓는 냄비가 될 수밖에 없는데, 이같은 속성은 익명성에 기인하고 있다. 하지만 익명성은 '물'을 만들어 발언 기회를 중재해야 하는 여타 공론장과는 다르게 '신상털기'에서와 같은 피해자를 만들 수 있다. 그럼에도 인터넷이 토론의 공간이 된 것은 다른 곳에서 토론을 할 수 없기 때문이며, 다른 곳에서 얘기할 수 없는 사회적 약자들이 자신의 주장을 개진할 수 있는 거의 유일한 공간이기 때문이다. 이는 우리가 인터넷이란 매체를 조심스럽게 대해야 하는 이유를 설명해준다. 그리고 일상적으로 인터넷을 사용하고 있다면 격렬한 토론에 휘말리는 것은 드문 일이 아니다. 그럴 때 다음에 소개하는 어드바이스가 무기가 되어 상대를 설득시킬 가능성이 높아질 것이다.

비유표현은 사용하지 않는다 '그건 한마디로 ○○와 같은 것이군요' 라는 비유표현은 절대 사용하지 말도록 한다. 비유표현은 의도하지 않고 누군가에게 상처가 될 가능성이 높다. 인터넷 상에서는 다양한 사람들이 존재하기 때문에 개인적으로 공격당했다고 착각하는 경우가 많다.

인용은 지나치지 않는 선에서는 OK 자신의 의견을 뒷받침하기 위해서 유명인이나 지식인 견해를 인용을 하는 것이 효과적이다. 하지만 인용은 짧게 하도록 한다. 긴 인용문은 올려도 문헌 가능성이 높기 때문이다.

질문을 하지 않는다 질문을 하면 상대가 스테이지 위에 올라와서 자유롭게 스피치를 시작해 버리기 때문이다. 이렇게 되면 상대가 좋아하는 각도에서 토론을 진행하게 된다.

귀에 거슬리는 말은 사용하지 말자 상대방을 모



욕하거나 깎아내리는 말을 한다 해서 자신의 의견이 강해지는 것은 아니다. 이런 글을 사용하면 자신의 기분은 좋을지 모르지만 토론에서 상대를 설득시킬 가능성은 희박하다.

올리기 전에 간단히 확인한다 인터넷에 글을 올리기 전에 처음 문장은 짧게, 그리고 결론을 포함했는지 확인해야 한다. 이에 맞춰 비유표현을 사용하지는 않았는지, 거슬리는 문구는 없는지 등의 항목도 확인할 수 있다면 더욱 좋을 것이다.

FIND THE HIDDEN PICTURE

지난 한 해는 우리 서사인 모두가 값진 내일을 위해 최선을 다한 시간이었습니다. 즐거운 성탄절과 함께 다들 건강하게 새해를 맞이했으면 좋겠네요. 아래 그림 속에 담긴 숨은 그림을 찾아 올려주시면 정답을 맞힌 분을 추첨하여 상품권을 지급해 드립니다. 정답은 서울사이버대학교 홈페이지(홈-대학생활-이벤트)로 들어가서 보내주면 됩니다.

- 2012 겨울호 숨은 그림 찾기
- 사과, 8분 침포, 우산, 사탕, 스프링노트, 빛, 토끼인형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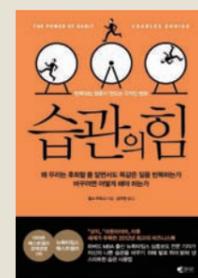
그림: 이우진, 김시원

2012 가을호 당첨자 & 한마디

- 박연정** SCU e아기를 통해서 학교소식을 들을 수 있고, 참여했던 행사는 다시 보니 반가운 부분이 듭니다. 더 많은 소식 부탁드립니다~
- 이미경** 그림찾기를 하는 동안 집중하는 자신을 발견할 수 있어 좋은 시간을 보낼 수 있는 기회가 되었으며, 요즘은 한 걸기라 어느 때보다 피로하고 건강관리가 필요하다는 생각이 들어 건강에 관련된 좋은 정보를 주셨으면 하는 바람을 가져봅니다.
- 송승길** 기업체 현장탐방(학과관련) 등 각종 정보를 많이 실어 주셨으면 합니다. 앞으로 학생들에게 직접적으로 도움이 될 수 있는 알찬 정보로 가득 차길 기대합니다.
- 권재현** 제가 학교를 몇 번 방문해봤는데 학교 구성구석 너무나 멋있고 아름다웠습니다. 온라인수업 특성상 학교 방문 기회가 적는데 학교의 아름다운 모습들을 소개하는 코너를 마련하면 학생들이 자주 방문하고 싶은 것 같으며, 졸업생들의 졸업 후 생활들을 다루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 이현옥** 노인시설에 계신 어르신들의 일상과 봉사활동에 대한 경험이나 여행후기 체험담을 통해 세상을 넓게 보는 시각을 갖는 계기가 되었으면 합니다.
- 고영미** 학기 중에는 공부하러 시험보러 너무 바쁜 학생들이 방향을 이용해 자격증 취득이나 학과 공부에 도움을 얻을 수 있는 서적이 있다면 SCU e아기에서 다루어 주셨으면 합니다.

BOOK

습관의 힘 THE POWER OF HABIT 반복되는 행동이 만드는 극적인 변화



반복되는 행동이 만드는 극적인 변화 『습관의 힘』, 하버드 MBA 출신 뉴욕타임스 심층보도 전문 기자 찰스 두히그가 자신의 나쁜 습관을 고치기 위해 발로 뛰어 밝혀 낸 스마트한 습관 사용법을 제시하였다. 7퍼센트의 미국인만 사용했던 치약이 어떻게 전 세계인의 필수품이 되었으며, 마이클 펠프스는 최악의 상황에서 어떻게 세계 신기록을 세울 수 있었는지, 스타벅스는 어떻게 말썽꾸러기 직원을 1년 만에 최우수 사원으로 만들었는지 등 다양한 사례를 통해 좀처럼 변하지 않는 자신과 세상을 간단하고 완벽하게 바꿀 수 있는 방법을 소개한다. 누구나 원하지만 뜻대로 되지 않는 일들의 중심에는 습관이 있다는 것을 알려주고, 왜 우리가 후회할 줄 알면서도 같은 일을 반복하고 있었는지를 깨닫게 해준다.

- 찰스 두히그 지음, 강주원 옮김, 깔리온 펴냄

내가 보고 싶었던 세계 석지영의 삶, 생각, 열정을 마주하다!



2006년 한국계 최초로 하버드법대 교수로 임용되고, 2010년 아시아여성 최초로 하버드법대 종교교수로 선출된 이후 법률교육에 대한 창의적인 교수법과 새로운 발상으로 주목받는 저자가 자신을 만든 진정한 지식과 감성에 대한 이야기를 들려주는 책이다. 한국 학생들이 궁금해 하는 저자의 성장과정과 저자가 선택한 길에 대한 답과 함께 자신의 기억에서 뚜렷하고 의미 깊은 자리를 차지하고 있는 이야기들을 담았다. 하고 싶은 일을 찾을 것, 일을 놀이처럼 즐길 것, 언제나 새로운 것을 시도하고 위험을 감수할 것, 크건 작건 무언가를 만들고 창조하는데 운임을 다할 것, 젊은이에게 조언자가 되어 주고 스스로의 조언자도 구할 것 등 저자가 가슴 속에 지니고 살아가는 원칙들을 만나볼 수 있다.

- 석지영 지음, 송연수 옮김, 북하우스 펴냄



SCU 200% 활용하기 시리즈 ③

2013학년도 입시 전형료 전액 면제 부담 없이 자신의 꿈에 도전하라

지원자 부담 완화 위해 입학 전형료 전액 면제 사이버대 최초 1년 4학기제 도입, 개인별 맞춤 학기 이수 지원

서울사이버대학교는 2013학년도 입시부터 지원자들의 전형료(3만원)를 전액 면제한다. 이는 사이버대학 최초로 1년 4학기제를 도입한 것을 기념하고, 지속되는 불경기에 대입 지원자들의 부담을 조금이나마 덜어주기 위한 결정이다.

대학 입시 전형료는 온-오프라인을 막론하고 매해 입시마다 논란의 대상이었으며, 대학들이 전형료를 통해 많은 수익을 거두면서도 산정, 지출 기준을 명확하게 밝히지 않아 대학 운영의 투명성 문제로까지 이어지기도 했다. 특히, 전형 과정이 거의 100% 온라인으로 이뤄지는 사이버대학교의 경우, 학생들에게 불필요한 부담을 지운다는 비판의 목소리가 높다.

이러한 와중에 서울사이버대학교의 전형료 전액 면제 결정은 사이버대학으로서도 처음 있는 일로, 지원자들의 큰 호응을 얻을 전망이다. 체정민 입학처장은 "학생들의 입시 지원에 전형료가 걸림돌이 되어서는 안 된다는 판단 하에 이러한 결정을 내렸다"며 "사이버대학 입학에 고려하는 지원자들이 부담 없이 자신의 꿈에 도전할 수 있기를 바란다"고 말했다.

한편, 서울사이버대학교는 2013학년도부터 국내 사이버대 최초로 1년 4학기제를 도입, 실시한다. 1년 4학기제는 기존의 1, 2학기 하계 및 동계방학에 개설하는 각 6주간의 집중학기를 더해 연간 총 42주의 수업을 진행하는 제도이다. 기존

의 1년 2학기제에 비해 연간 수업일수가 12주 더 늘어나, 그만큼 학점을 더 많이 취득할 수 있고 조기졸업이 용이해진다. 더불어 장학금수혜의 기회가 1년 4회로 늘어남에 따라 학생들의 등록금 부담이 한결 가벼워지는 효과를 기대할 수 있다.

1년 4학기제 운영을 통해 개별 학생의 졸업 계획에 따라 맞춤 학기 이수를 지원한다. 학생들은 각자 자신의 목표에 맞춰 신입생은 3년, 3.5년, 4년, 편입생은 1.5년, 2년 등 다양한 졸업트랙을 선택할 수 있게 되었다. 이렇듯 스마트한 교육과정을 통해 학생이 일과 학업을 병행하는데 지장이 없도록 재학생 맞춤 학사 서비스를 제공할 계획이다.

세계 최초의 국가 간 연합대학 아세안사이버대학 주관대학으로 2년 연속 선정



한국과 아세안(ASEAN·동남아 국가연합) 10개국을 아우르는 사이버대학으로, 한국과 아세안 국가 국민 누구나 온라인으로 강의를 수강하고 학점과 학위를 받을 수 있는 세계 최초의 국가 간 연합대학이다.

서울사이버대학교가 교육과학기술부로부터 한국을 대표해 아세안사이버대학 설립 프로젝트 추진을 주도할 주 협력대학으로 선정됐다. 아세안 사이버대학교는

서울사이버대학교 이러닝 노하우 세계에 전파



서울사이버대학교는 세계적으로 품질을 인정받은 우수한 이러닝 콘텐츠를 세계 각국에 전수하는 데 앞장서고 있다. 12월 11일부터 15일까지 카자흐스탄 공화국의 국립 역량강화센터 및 교육부 관계자 32명이 한국의 우수한 사이버대학시스템을 배우기 위해 본교를 방문하여 교육을 받았다.

서울사이버대학교는 세계적으로 품질을 인정받은 우수한 이러닝 콘텐츠를 세계 각국에 전수하는 데 앞장서고 있다. 12월 11일부터 15일까지 카자흐스탄 공화국의 국립 역량강화센터 및 교육부 관계자 32명이 한국의 우수한 사이버대학시스템을 배우기 위해 본교를 방문하여 교육을 받았다.

SCU 석좌교수 일류특강



서울사이버대학교는 2012년 12월 7일부터 2013년 2월 1일까지 3개월에 걸쳐 차이코프스키홀에서 석좌교수 일류특강을 열고 있다. 재학생 및 신·편입생 지원자와 일반인을 대상으로 무료로 진행되는 특강은 변화하는 시대에 발맞춰 창의적인 교육과 이를 실행하는 지혜를 나누기 위해 매년 지속적으로 시행하는 프로그램이다.

서울사이버대학교는 2012년 12월 7일부터 2013년 2월 1일까지 3개월에 걸쳐 차이코프스키홀에서 석좌교수 일류특강을 열고 있다. 재학생 및 신·편입생 지원자와 일반인을 대상으로 무료로 진행되는 특강은 변화하는 시대에 발맞춰 창의적인 교육과 이를 실행하는 지혜를 나누기 위해 매년 지속적으로 시행하는 프로그램이다.

평생교육원 다양한 특강



서울사이버대학교 평생교육원에서는 1월 5일 본교에서 <학부모가 알아야 할 진로와 자기주도 학습> 특강을, 12월 8일에는 <통(通)하는 학습코칭>이란 주제로 특강을 개최했다. 그리고 1월 5일과 12월 강북구청의 후원으로 평생교육원이 주관하여 재능기부 특강이 이루어졌다.

서울사이버대학교 평생교육원에서는 1월 5일 본교에서 <학부모가 알아야 할 진로와 자기주도 학습> 특강을, 12월 8일에는 <통(通)하는 학습코칭>이란 주제로 특강을 개최했다. 그리고 1월 5일과 12월 강북구청의 후원으로 평생교육원이 주관하여 재능기부 특강이 이루어졌다.

동문기부금으로 따뜻한 마음 나뉘

부동산학과 이복일 동문이 12월 22일 모교에 학과발전기금 500만원을 전



달했다. 이 동문은 4년 전부터 시작하여 매년 교육기부를 이어나가고 있는데, 이번 기금은 부동산학과 발전을 위해 쓰일 예정이다. 이복일 동문은 "후배들이 좋은 교육 프로그램을 통해 학업에 매진할 수 있게 최선을 다해달라"고 전했다.

달했다. 이 동문은 4년 전부터 시작하여 매년 교육기부를 이어나가고 있는데, 이번 기금은 부동산학과 발전을 위해 쓰일 예정이다. 이복일 동문은 "후배들이 좋은 교육 프로그램을 통해 학업에 매진할 수 있게 최선을 다해달라"고 전했다.

재학생 초청 송년문화행사 '백조의 호수' 발레 공연 관람



재학생들과 함께하는 송년 문화행사의 일환으로, 12월 9일 오후 3시 예술의 전당 오페라하우스에서 재학생 2,000여명을 초청하여 '백조의 호수' 발레공연을 관람했다. 2005년부터 매년 시행해온 송년 문화행사는 직장과 학업 병행으로 문화행사를 즐기기가 어려운 재학생들을 위해 기획됐으며, 지금까지 1만여 명의 학생들에게 문화공연의 기회를 제공해왔다.

재학생들과 함께하는 송년 문화행사의 일환으로, 12월 9일 오후 3시 예술의 전당 오페라하우스에서 재학생 2,000여명을 초청하여 '백조의 호수' 발레공연을 관람했다. 2005년부터 매년 시행해온 송년 문화행사는 직장과 학업 병행으로 문화행사를 즐기기가 어려운 재학생들을 위해 기획됐으며, 지금까지 1만여 명의 학생들에게 문화공연의 기회를 제공해왔다.

총동문회 주최 <서사인의 밤> 개최



올해로 7회째를 맞는 총동문회 주최 서사인의 밤 행사가 12월 1일 토요일 명동 세종호텔에서 성대하게 개최되었다. 온라인으로 진행되는 수업방식에서 벗어나 오프라인에서의 뜻깊은 만남을 통해 서사인의 긍지와 학교에 대한 지부심을 높일 수 있는 행사를 매년 기획하여 시행하고 있는데, 이날 행사에서 부동산학과 이재용 교수가 <제7회 자랑스러운 서사인 상>을 수상하였다.

올해로 7회째를 맞는 총동문회 주최 서사인의 밤 행사가 12월 1일 토요일 명동 세종호텔에서 성대하게 개최되었다. 온라인으로 진행되는 수업방식에서 벗어나 오프라인에서의 뜻깊은 만남을 통해 서사인의 긍지와 학교에 대한 지부심을 높일 수 있는 행사를 매년 기획하여 시행하고 있는데, 이날 행사에서 부동산학과 이재용 교수가 <제7회 자랑스러운 서사인 상>을 수상하였다.

SCU WAVE 사회봉사단 생명나눔 헌혈증 전달식

SCU WAVE 사회봉사단에서 생명나눔 봉사활동의 일환으로 학생(김성연, 문희철, 박봉희, 변숙현, 성진오) 5명과 교직원(이성태, 정상원, 권혁용, 노양건, 유성인, 정두나) 6명이 기증한 소중한 헌혈증들이 11월 30일 한국백혈병 어린이 재단을 통하여 김민호(가명, 3세, 급성골수성백혈병) 학생에게 전달되었다.

태국 스리파툼대학교 교육부 협약체결



서울사이버대학교는 11월 14일 태국 스리파툼대학교(Sripatum University, SPU)와 교육분야 공동연구 및 상호교류증진을 위한 협약을 맺었다. 태국의 스리파툼대학교는 태국 5개 명문 사립대 중

서울사이버대학교는 11월 14일 태국 스리파툼대학교(Sripatum University, SPU)와 교육분야 공동연구 및 상호교류증진을 위한 협약을 맺었다. 태국의 스리파툼대학교는 태국 5개 명문 사립대 중

하나로, 특히 경영학 및 미디어공학, 법학 분야에서 태국 내 최우수 대학으로 평가받는 대학이다.

한국예술종합학교와 학술교류 MOU 체결



서울사이버대학교는 10월 30일 본교 3층 회의실에서 한국종합예술학교와 양 대학교 간 상호협력 증진 및 학술교류 MOU 체결했다. 이번 협약을 통해 양 대학교는 학생교류 및 상호 학점인정에 대한 지원과 학술정보 및 학술자료의 교환, 상호의 교육 및 연구시설 이용을 지원 협력하게 된다.

사회복지학과, 교수와의 만남을 통한 소통의 장

사회복지학과 교수와 졸업생은 10월 20일 모처럼 만나 뜻깊은 캠퍼스 투어 및 특강 행사를 진행했다. 이날 모임에는 사회복지학과 졸업생 약 30여 명과



학과장인 박태정 교수를 비롯한 사회복지학과 교수들이 참석하여, 국내 최대 규모인 최첨단 이러닝 강의 스튜디오와 콘텐츠 제작 현장을 체험하는 시간을 가졌다.

노인복지학과 권금주 교수 보건복지부장관 표창



노인복지학과 권금주 교수는 2012년 12월 12일 코리아나호텔에서 보건복지부 주최로 열린 '노인학대 예방 및 해결을 위한 2012 민·관 협력체계 활성화 방안 워크숍'에서 노인학대 예방 사업 발전 및 노인권의 향상에 이바지 한 공로를 인정 받아 보건복지부장관 표창을 수상했다.

교수 동정



고윤승 교수, 스마트 러닝 관련 논문 게재

경영학과 고윤승 교수는, 2012년 7월 발간한 과학문화전시대 지인연구소 학술지에 논문 「스마트 러닝의 현황과 해외시장 진입에 관한 연구」를 게재하였다.



권군순 교수, 평화활동 관련 논문 게재

교양학부 권군순 교수는, 2012년 12월 31일 발간된 국방대학교 안보문제연구소에서 발간한 국방연구 제55권 제4호에 논문 「복합적 위기상황(Complex Emergency)하 평화활동을 위한 민군협력을 게재하였다.



김미주 교수, 「공중보건학」 출간

보건행정학과 김미주 교수는, 2012년 9월 「공중보건학(교문사)」를 출간하였다.



김영민 교수, 물류 관련 논문 게재

국제무역물류학과 김영민 교수는, 2012년 9월 발간한 한국국제상학회 학술지에 논문 「종합물류기업 인증제도의 재무성과 분석」을, 한국유통경영학회 학술지에 논문 「e-Learning 물류 교육 프로그램에서 학습자의 물류 특성이 물류학습성과에 미치는 영향」을 게재하였다.



김용희 교수, 「부동산 실무기초」, 「자연에게 길을 묻다」 출간

부동산학과 김용희 교수는, 2012년 12월 「부동산 실무기초(북마울)」과 「자연에게 길을 묻다(북마울)」를 출간하였다.



김윤나 교수, 논문 게재 및 「청소년육성제도론」 출간

사회복지학과 김윤나 교수는, 2012년 8월 발간한 대한교육법학회 학술지에 논문 「시민청소년관점에 비추어 본 다문화가족 지원법의 한계 및 발전방향」을 게재하고 9월 「청소년육성제도론(신정출판사)」를 출간하였다.



김지연 교수, 뉴미디어 관련 논문 게재

상담심리학과 김지연 교수는, 2012년 10월 발간한 한국문화 및 사회문제 심리학회 학술지에 논문 「뉴미디어와 게임이미지 변동 : 게임이미지 변동과 시사점」을 게재하였다.



김현아 교수, 청소년 관련 논문 게재

상담심리학과 김현아 교수는, 2012년 8월 발간한 한국청소년정책연구원 학술지에 논문 「그룹 홈 종사자의 무연고 탈북 청소년과의 거주 경험에 관한 질적 연구」를, 8월과 6월에 발간한 한국상담학회 학술지에 논문 「전문상담사 자격검정제도 개선에 대한 요구조사」, 「전문상담사 자격검정제도 개선에 대한 기초연구」를 게재하였다.



김현진 교수, 학습컨설턴트 1급 자격 취득

상담심리학과 김현진 교수는, 2012년 10월 한국교육심리학회에서 발급하는 학습컨설턴트 1급 자격을 취득하였다.



김 환 교수, 「고객상담과 심리상담의 길잡이」 출간

상담심리학과 김 환 교수는, 2013년 1월 고객상담과 심리상담의 특징 및 핵심기법을 설명한 「고객상담과 심리상담의 길잡이(교문사)」를 출간하였다.



박병석 교수, 동양사상 관련 논문 게재

국제무역물류학과 박병석 교수는, (사)한국정치평론학회에서 발간하는 학술지 『정치와 평론』 제11집(2012년 11월)에 논문 「『동양사상』 비판자의 접근방법론 비평」을 게재하였다.



박종선 교수, 이러닝 관련 논문 발표

교양학부 박종선 교수는, 2012년 9월 이러닝학회가 주최한 학술대회에서 논문 「사이버대학 이러닝 수업의 과제수행활동 분석 연구」를 발표하였다.



박태정 교수, 다문화가정복지 관련 논문 발표

사회복지학과 박태정 교수는, 2012년 11월 말레이시아 사회복지부(Department of Social Welfare Malaysia)가 주최한 학술대회에서 논문 「Issues and limitations of social service for multicultural families : The case of South Korea」를 발표하였다.



서영수 교수, 투자심리 관련 논문 게재

금융보험학과 서영수 교수는, 2012년 10월 한국자료분석학회에서 발간한 학술지에 논문 「이러닝기반의 투자심리 교육이 학업만족도에 미치는 영향에 관한 실증연구」를 게재하였다.



오창환 교수, 「디지털 3.0 시대의 상식 사전」 출간

컴퓨터정보통신학과 오창환 교수는 2012년 12월 『디지털 3.0 시대의 상식 사전(한국학술정보)』을 출간하였다.



이서영 교수, 사회복지사 관련 논문 발표

노인복지학과 이서영 교수는, 2012년 12월 일본 중부대학이 주최한 학술대회에서 논문 「한국의 사회복지사 교육의 현황과 과제」를 발표하였다.



이성태 교수, 게임 관련 논문 게재 및 작품 전시

뉴미디어콘텐츠공학과 이성태 교수는, 2012년 9월 발간한 한국컴퓨터게임학회 학술지에 논문 「문화적 환경 차이를 고려한 게임 현지화 연구 : 크로스피어의 중국사례를 중심으로」를 게재하였다. 12월 한국콘텐츠학회에서 주최한 'ICCC2012 International Digital Design Invitation Exhibition'과 11월 Korea Society of Design Trend가 주최한 'KSDT International Design Trend 2012'에 작품을 전시하였다.



이우경 교수, 심리학 관련 논문 게재

상담심리학과 이우경 교수는, SSCI 저널 Asia-Pacific Psychiatry 9월호에 논문 「Theory of mind in schizophrenia: Correlation with clinical symptomatology, emotional recognition and ward behavior」를 게재하였으며, 또한 SCI 저널 American Journal of Medical genetics: Part B. Neuropsychiatric Genetics 10월호에 논문 「Association of genetic variation in DTNBP1 with cognitive function in schizophrenia patients and healthy subjects」를 게재하였다.



이의신 교수, <젠하이저 - 퍼펙트 사운드 콘서트 (Perfect Sound Concert)> 연출 및 기획

문화예술경영학과 이의신 교수는, 2012년 11월 24일 AX-KOREA에서 열린 공연 <젠하이저 - 퍼펙트 사운드 콘서트(Perfect Sound Concert) >의 예술 감독으로서 총연출과 기획을 하였다.



이정원, 한수미 교수, 「군인가족상담」 공동 출간
군경상담학과 이정원 교수와 상담심리학과 한수미 교수는, 2012년 10월 「군인가족상담(교육과학사)」를 공동 출간하였다.



이향아 교수, 스마트 러닝 관련 논문 및 작품 전시

멀티미디어디자인학과 이향아 교수는, 2012년 12월 한국과학기술포럼에서 논문 「교육용 앱을 통한 스마트 러닝의 확장성 연구」를 발표하였으며 12월에 한국디자인진흥원이 주최한 '2012년 KDC(한국시각디자인협회)국제교류전'에 한국의 이미지 작품을 출품하였다.



임태순 교수, 금융학 관련 논문 게재

금융보험학과 임태순 교수는, 2012년 6월 행복한 부자학회에서 발간한 학술지에 논문 「부자와 행복한 부자에 관한 연구: 나눔을 실천한 행복한 부자의 사례를 중심으로」를 게재하였다.



전광호 교수, 온라인 인증마크 관련 논문 게재

경영학과 전광호 교수는, 2012년 8월 발간한 (사)한국기업경영학회 학술지에 논문 「온라인 인증마크 유형별 온라인 신뢰구축 효과의 차이에 관한 연구」를 게재한데 이어, 9월 이러닝학회가 주최한 학술대회에서 논문 「학습자 지향적 이러닝콘텐츠 품질평가에 관한 연구」를 발표하였으며, 6월 발간한 (사)한국상품학회 학술지에 논문 「기업 간 관계에서 신뢰의 차별화 효과에 관한 연구 : 관계기관의 역할」을 게재하였다.



전호진 교수, 물류 관련 논문 게재

금융보험학과 전호진 교수는, 2012년 9월 발간한 한국국제상학회 학술지에 논문 「종합물류기업 인증제도의 재무성과 분석」을, 한국유통경영학회 학술지에 「e-Learning 물류교육 프로그램에서 학습자의 물류 특성이 물류학습성과에 미치는 영향」을 게재하였다.



차명희 교수, 작품전시 및 논문게재

멀티미디어디자인학과 차명희 교수는, 12월 한국디지털디자인협회 주관 Cutting Edge 2012 Best Digital Designer Invited International Exhibition'에 'harmony'란 주제로, 일본 Saga University에서 열린 'ICCC 2012, Japan'에 'Cyber Love' 라는 주제로 작품을 전시하였다. 또한, 12월 한국컴퓨터게임학회 학술지에 논문 「게임 환경의 건축물 배경 맵 모델 연구」를 게재하였다.



허재현 교수, 보건행정 관련 논문 게재

보건행정학과 허재현 교수는, 2012년 9월 발간된 『보건경제와 정책연구』 제18권에 논문 「시민위원회와 건강보험 보장성 의사 결정 사례」를 게재하였다.

교과부 종합평가 최우수 사이버대학교

서울사이버대학교

해외에서도 인터넷으로 정규 학사·석사학위 취득

학부 신·편입생 모집

2013년 1월 16(수) 부터

입학문의 02-944-5000

최고 교수진
최첨단 16,000m² 교육시설



방송국 수준 스튜디오



멀티미디어 강의실



차이코프스키홀

학교법인
신일학원



서울사이버대학교

www.iscu.ac.kr



2007 교과부 종합평가 최우수 서울사이버대학교 방문을 환영합니다. 지하철 4호선 미아(서울사이버대학)역 입니다.